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徐 仲 錫

## 제주 4.3항쟁과 여성의 삶에 관한 연구

成均館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歷史教育專攻

李 貞 淑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徐 仲 錫

## 제주 4.3항쟁과 여성의 삶에 관한 연구

Jeju Women's lives in the Context  
of the Jeju April 3rd Uprising

成均館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歷史教育專攻

李 貞 淑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徐 仲 錫

## 제주 4.3항쟁과 여성의 삶에 관한 연구

Jeju Women's lives in the Context  
of the Jeju April 3rd Uprising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4年 2月 日

成均館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歷史教育專攻

李 貞 淑

이 論文을 李貞淑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定함

2004年 2月 日

審査委員長\_\_\_\_\_

審査委員\_\_\_\_\_

審査委員\_\_\_\_\_

# 목 차

머리말	1
<b>I. 해방 전후 시기의 제주도에서의 여성의 활동</b>	<b>4</b>
1. 야학의 영향	4
2. 1945-1948년 제주 여성들의 정치 사회적 활동	10
<b>II. 4.3항쟁과 여성의 인권유린</b>	<b>23</b>
1. 고문의 실태	23
2. 성폭력의 실태	27
3. 강제결혼의 실태	32
4. 학살의 실태	35
1) 작전으로서의 학살 : 초토화 작전에 의한 학살	36
2) 보복에 의한 학살	39
3) 처형으로서의 학살 수형인 학살과 예비검속자 학살	46
<b>III. 4.3항쟁이후의 여성의 삶</b>	<b>52</b>
1. 경제적 차원: 여성가장의 역사와 생존으로서의 재가	52
2. 사회적 차원: 여성들의 기억과 연좌제	57
맺음말	62
참고문헌	65
ABSTRACT	69

- 표 목 차 -

<표 1> 예비검속자 명부 .....	50
<표 2> 연좌제 피해사례에 대한 응답 .....	60

## 머리말

1945년 해방 후 우리 민족에게는 사회개혁과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남과 북에는 각각 소련과 미군이라는 외세가 주둔했고 이들은 자국의 이해관계를 도모했으며 미군 점령기 3년의 모든 사회 모순과 갈등은 증폭되어 분단으로 귀결되었다. 분단은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 실시에 의해 구체화되었고 통일정부 수립을 염원하던 제주민중들은 단독 선거반대라는 기치아래 4월 3일 봉기하였다. 이러한 4.3민중항쟁을 통해 제주도 민중들은 해방 후 최대의 집단적 희생자가 되었다.<sup>1)</sup>

올해에는 제주 4.3민중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그동안의 4.3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연구를 정부차원에서 인정하고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한걸음 내딛은 것으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방 이후부터 4.3의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여성들의 참여도와 인권유린의 실태 및 이후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렇다면 자주적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그리고 단독정부수립을 위해 반공테러리즘으로 제주도민을 압살한 국가 폭력 속에서 제주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왜 제주 여성의 역사는 연구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근 십년간 4.3에 대한 피해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연구논문도 양적으로 풍부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방대한 양의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4.3이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남성들의 정치, 사회적 활동 위주의 서술이 주류를 이루으로써 여성들의 역사적 참여나 경험은 역사 속에서 제외되었다. 역사는 남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역사적 사건의 전유물이 아니므로 역사의 총체성의 복원을 위해 여성사는 연구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은 어느 사회적 범주로도 환원할 수 없는 고유한 경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여성은 계급, 인종문제로도 해명할 수 없는 독특한 억압체계 하에서 고통받아왔다.<sup>2)</sup> 4.3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성적 폭력에 시달려야 했으며 가족과 친족을 위해 강제결혼을 통한 희생도 감수했다. 또한 도피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남성대신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또한 4.3이후 살아남은 여성들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적 사회질서의 영향으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

1)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3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2만 5천명에서 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2) 정현백, 「여성사 연구의 이론과 방법」, 『역사비평』 제 26호, 1994  
이남희, 「서구여성사 연구의 형성과 전개」, 『한국사 시민강좌』 제 15집, 1994

셋째, 여성의 역사가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별(gender)에 따라 사회구조를 포함한 사회 전영역과의 관련성 하에서 고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여성의 역사는 어떤 의미로 보면 사회사이다.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표방하는 사회사로부터 여성사는 관점이나 방법론에서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여성사의 규명 없이는 전체사회사라 말할 수 없다. 4.3항쟁 속에서의 전체 여성사의 복원을 통해 해방 후 벌어졌던 4.3의 전체 사회사의 복원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그러나 제주 여성의 역사에 대한 고찰을 위해서는 많은 방법론적인 한계점을 극복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왜냐하면 여성의 활동에 대해 기록한 사료는 매우 빈약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4.3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로 군경의 정보 보고서와 신문자료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 속에서 여성에 대한 기록은 극히 찾아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당시 여성은 역사적, 사회적 주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4.3당시의 여성의 경험이나 이후 드러나는 여성들의 역사의식은 기록에 기반을 둔 문헌 중심적 역사쓰기 외에 새로운 연구방법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제주도 4.3사건 국회진상보고서에 따르면 4.3항쟁 희생자에 대한 통계로 남성 9637명 여성 2574명으로 보고 있다. 비율로 따지면 남성의 78.1%가 여성의 21%가 4.3으로 희생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sup>3)</sup> 수치로만 보면 4.3으로 인한 남성 희생자가 여성희생자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3항쟁에서의 여성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수치나 공식화된 집계는 무의미하다. 여성들은 직접적인 학살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토벌대에 의해 다른 형태의 성적 폭력들에 시달렸으며 가족을 위해 강제 결혼을 감수해야 했다. 또한 남편, 자식, 부모형제를 잃은 살아남은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4.3이후 집을 다시 세우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했다. 또한 남편이 입산한 경우에는 이유도 모른 채 경찰에 잡혀가 모진 고문을 이겨냈으며 지금도 피해의식으로 인해 역사적 침묵을 자진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특수한 경험들은 양적으로 수치화될 수 없는 것들이다.

최근 역사학 일부에서도 다양한 역사방법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술을 기초로 한 역사 서술도 역사적 사실의 복원이라는 역사학 본연의 지평을 넓히는데 일조한 것으로 인정하고 싶다.<sup>4)</sup> 이에 본 논문은 기존의 신문과 증언집, 논문 등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문헌자료에서 발견할 수 없는 여성의 경험을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당사자인 여성의 입을 통해 재발견하고자 한다. 여성의 역사는 사적이건 공적이건 재현 형태상 문헌과 구술로 나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역사 서술이 문헌연구에 전적으로 의존했다면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에서 빠진 여

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 보고서』, 2003, 386쪽

4) 윤택림, 「역사인류학자의 시각에서 본 역사학 구술사 연구를 중심으로」, 『역사문제 연구』, 6호, 역사비평사, 2001

-, 『인류학자의 과거여행: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3

성의 역사에 대한 진실을 구술을 통해 재현하고자 한다. 구술에 대한 정의로 '과거에 대한 개인적인 기억들의 환기와 기록'이며 '이제까지 이용되지 않았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구술을 기록함으로써 생기는 1차적 자료' 라고 분석되어 있다. 구술사(Oral history) 연구에서도 역사적 사실이란 과거 경험이 한 개인의 사적 기억이라는 장치를 통해 현재로 불러나와 재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결국 구술사라는 새로운 연구방법은 문헌사료에 기반을 둔 역사적 사실과 더불어 4.3과 여성의 역사의 규명에 더 넓은 시야와 사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문헌사료로는 주로 당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제주신보, 미군정 정보 보고서, 제주 4.3연구소가 발간한 증언집 『이제사 말함수다』, 『4.3은 말한다』, 『4.3장정』, 『제주항쟁』, 『무덤에서 살아나온 4.3수형자들』, 이도영의 『죽음의 예비검속』 과 만병디 유족회가 발간한 『만병디에 묻힌 진상과 증언』, 제주 4.3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연구원이 엮은 『제주민중항쟁』, 제주 의회 4.3특별위원회가 발간한 『제주도 4.3피해조사보고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발간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제주4.3자료집』, 한림화 선생의 세미나 자료집 등을 주로 참고하였다.

이 글에서는 항쟁의 와중에서 일반 여성들이 남성과 다르게 겪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경험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여성들을 연령과 결혼의 유무, 교육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해방 후부터 1948년 4.3항쟁의 시기동안 제주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보여준 정치적, 사회적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범주를 세분화하여 해방이전 활발히 전개되었던 야학과 사회단체활동과 이에 영향을 받아 해방 후부터 4.3발발시기까지의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에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단독정부수립에 맞선 제주민중들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에 제주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된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4.3이라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드러난 여성적 존재형태의 특수성과 경험 및 역사의식에 대한 고려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실정이었다. 그런데 여성의 특수한 역사는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의 모습 속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4.3이후 살아남은 여성들의 역사를 미망인 가구의 가장으로서의 삶과 생존전략으로서 재가를 선택한 여성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4.3으로 인해 자신이 당한 인권침해의 사실에 대해 피해 여성이 입을 열지 못하는 사회적 조건과 침묵적 저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좌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소외되어 왔고 묻혀왔던 여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전체 제주사람들의 4.3의 역사를 복원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 I. 해방 전후 시기의 제주도에서의 여성의 활동

### 1. 야학의 영향

일제 식민지 시대 야학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각 부락마다 문맹퇴치를 꾀한 교육운동으로 시작되어 해방 후 공립학교가 설립되기 전까지 존속되었다. 대부분 야학의 설립과 운영은 당시 민족해방운동 지도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들은 교회건물이나 향사, 주택 등을 빌려 운영했는데 당시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한글, 산술 등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글을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역사나 시사적인 내용도 가르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 노력했다.

1920년대 이전에 조천리의 조선 부녀야학은 김시숙에 의해 설립되었다. 김시숙은 당시 결혼에 실패한 독신여성으로 40세 이후에 글을 배우고 1925년 최정숙, 강평국, 이재량 등과 함께 제주여자청년회를 조직해 초기 여성운동을 전개했다. 야학 개설 후 50명이 학생들에게 항일적인 내용을 주로 가르쳤다.<sup>5)</sup>

지금부터 제주 각 지역별 부녀야학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대정면의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당시 10년간 모슬포에서 야학운동을 전개했던 박용후씨는 이렇게 회고한다.<sup>6)</sup>

“모슬포 상, 하모리에 야학을 설치해서 여자 한 3백여 명을 계몽, 교육시켰지.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을 빌어서 방 4개를 터도 모자랄 정도로 콤팩트했어. 여자는 한 마을에 한둘 정도 보통학교를 다녔으니 거의가 문맹이야. 하다가 어떤 때는 사람 숫자가 많아져서 향사도 빌리고 교회당도 빌려서 했지. 대개는 한 열 서너 살부터 십 칠팔세의 처녀들이 대부분이었지.

가르치는 내용은 한글을 우선 가르치고 보통 생활하려면 수학 상식이 없으면 안 되니까 수학도 가르치고 역사나 상식도 가르치면서 민족정신도 넣으려고 했으니까 내용은 복합적이라 할 수 있지.”

당시 실제로 야학을 다녔던 문공학 할머니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고한다.<sup>7)</sup>

“부녀자들이 더 열심이었지. 당시는 한국 풍속에 여자들이 향사 마당에 땡기면 안

5) 동아일보 1926년 5월 20일

6) 제주 4.3연구소, 『4.3장정』 6, 1993, 13쪽

7) 앞의 책, 14쪽

된다고, 요즘 술집 다니는 것 이상으로 천하게 보는 거라. 그러니 부모 모르게 가서 공부한 거지.”

이 두 분의 증언을 통해 당시 야학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단순히 한글, 수학지도에 머문 것이 아니라 민족의식고취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정면 가파도에 대해 살펴보면 가파도의 교육은 김성숙에 의해 1921년 설립된 신유의숙부터 시작된다<sup>8)</sup> 학교는 6년제 학교로 민족해방운동 출신의 교사가 많았다.<sup>9)</sup> 대표적인 사람으로 김한정<sup>10)</sup>을 들 수 있다. 김한정 선생은 부녀회, 가파 청년회, 새별 소년 회를 조직하여 문맹퇴치를 한다는 명목 하에 토요일야학을 조직해 남녀 문맹퇴치 및 반일교육을 시켰다. 이러한 반일사상의 영향으로 당시 제주도 해녀동맹 파업이 일어났는데 항일잠녀투쟁에 대한 조직적 지도를 펼쳤다. 이러한 조직적 지도에는 1931년 결성된 재건공산당 제주도 야제이카가 연루되어 있었던 것이다. 각 면, 리 단위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구축된 야제이카는 중앙 통제 하에 각 조직마다 청년부, 여성부, 연락부, 농민부, 모퉁부 등의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제주도 야제이카는 신우면 애월리의 김원희의 집에서 강창보, 이익우, 오대진, 김한정, 신재홍 등 5명이 모여 결성한 단체이다.

1931년 6월부터 12월에 걸쳐 구좌면 하도리에서 해산물 매수가격을 둘러싸고 제주도 해녀어업조합과 해녀들 간의 분쟁이 발생했다. 전북, 감태의 매수는 지정매수인이 독점하려 했으며 판매가격을 억제하려 했기 때문에 해녀들이 반발하여 조합에 항의했다. 그러나 조합은 해녀를 위해 활동하지 않았다. 소위 선구전 판매제(先口錢 販賣制)라 하여 해산물이 채취되기 이전에 전부 거래가 이루어져 최고액의 구전입찰자에게 매수권이 인정되어 지정판매권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해녀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이었다. 실제로 높은 가격의 지정가격으로부터 매수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녀들에게는 싼 값에 팔 것을 강요했다. 이는 지극히 노골적인 덤핑판매요구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해인 1932년 더욱 본격화되어 1월 7일 하도

8) 김성숙은 1896년 가파도 태생으로 경성고보를 나와 3.1운동 당시 투옥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신유의숙을 세우고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 대학 정치 학부를 졸업했다. 해방 후 서울에서 김규식의 정치 노선을 따라 4.3당시에는 남북연석회의 차 월북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수립 후 야당에 적을 두다가 5.16군사독재 시절 국회활동을 마감했다.(김찬흠, 『20세기 제주인명 사전』, 제주문화원, 2000, 134쪽)

9) 대표적인 교사로 이도일, 이신호, 장중식, 송중형 등이 있다.

10) 1894년 대정면 가파도에서 태어나 신유의숙에서 교편을 잡고 새별 소년단 등 소년운동과 야학운동에 힘썼다. 1932년 제주도 야제이카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언도받고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제주도 지부 보안대장을 역임했다. 1946년 미군정의 검거를 피해 배를 타고 도피중 배가 침몰하여 사망했다.(같은 책 193쪽)

리 해녀 3백여 명이 시위에 나서게 되었다. 1월 21일에는 오조리 해녀 3백 명, 하도리에서 약 3백 명, 세화리에서 40명 등의 해녀가 세화리 장터에 모여 8개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시위하였다.<sup>11)</sup> 이일로 청년들이 검거되었는데 이 청년들이 바로 야학운동을 전개한 교사들이었던 것이다. 재건 공산당 제주도 야제이카 결성에 참여한 이익우는 해녀 대부분이 장부 및 전표를 기록하기 위해 야학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즉 해녀들의 사회의식 및 자신들의 생존권 투쟁을 위한 의식적 행동은 야학운동을 담당한 공산주의사상을 가진 청년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구좌면 하도리에서도 발견된다. 하도리 해녀사건으로 오문규가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오문규는 수감되기 이전 부인야학을 열기도 했다. 또한 부인야학 외에 소년회, 청년회, 소녀 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열고 의식개혁에 앞장섰다. 1932년 해녀투쟁에 앞장섰던 부춘화, 김옥련 등은 오문규와 왕래를 하며 그의 지도를 받았다.<sup>12)</sup>

이러한 교사들의 성향으로 제주도 공산당 재건 운동에 연루되면서 가파도의 신유의숙은 잠시 문을 닫았다가 1933년 초 다시 문을 열었다. 이때 교사로 김태능과 박용후가 교사로 초빙되어 가르쳤다. 초기 신유의숙 졸업자들은 육지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와 민족교육의 맥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러한 졸업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경선을 들 수 있다.<sup>13)</sup> 이경선은 신유의숙에서 3~4년 공부하고 동덕여학교를 나와 일본 고오베 약전을 졸업한 후 고향에 돌아와 1946년 조선 공산당원 배가운동 때 입당하고 대정중학교에서 물리, 화학을 가르쳤다. 이경선은 1947년 3.1운동 기념대회에서 기념 연설을 하고 48년 7,8월경에 부산 갔다가 월북하게 되었다.

47년 당시 3.1운동 기념대회에서 연설했던 이경선에 대해 이운방<sup>14)</sup>은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 당시 3.1운동 기념행사에는 이도일 교장선생이 참석하고 이신호, 이경선 선생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연설이 이경선 선생의 연설입니다.”<sup>15)</sup>

11) 후지나가 타게시, 「1932년 제주도 해녀투쟁」, 제주 4.3연구소, 『4.3장정』 2, 백산서당, 1990, 81~117쪽

12) 제주 4.3연구소, 『4.3장정』 5, 백산서당, 1990, 59~60쪽

13) 이경선의 아버지는 신유의숙의 숙장이었던 이도일씨로 대정면 인민위원회가 개설한 대정중학교 2대 교장을 역임하였다. 이러한 집안환경으로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일본유학까지 다녀오게 되었다.

14) 1909년 대정읍 모슬포 태생으로 구우공립보통학교, 제주농업학교를 나와 전북 고창고등학교를 1929년 졸업했다. 해방 후 대정면 건국준비위원회와 인민위원회 선전부장으로 활동하였다.

15) 제주 4.3연구소, 『4.3장정』 2, 1990, 36쪽

이경선에 대해 이운방은 여자가 전문학교까지 나왔으니 당시로는 굉장한 인텔리였고 연설을 잘하는 달변가로 기억했다.<sup>16)</sup>

또한 이경선 만한 여성도 없었으며 학식뿐만 아니라 활동도 그만큼 한 사람도 드물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한다. 이렇듯 야학은 당시 여성 지도자에게 사상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대정면 인민위원회는 해방 후 주요 사업으로 자주교육 운동을 전개했다. 인민위 문교부는 각 마을별로 국어강습회를 열고 해방가 등의 노래를 가르치면서 민족 의식을 고취시켰다. 대정국민학교에 임시 청년지도자 양성학원을 개설하고 국어를 교수하게 했다. 여기서 교육받은 청년들은 각 부락에 야학 강습소를 만들었다.

또한 리 인민위원회는 국민학교를 설립하기도 하는 등 교육사업에 적극적이었다. 이 시기에 세워진 대표적인 국민학교로는 가파 국민학교와 신도국민학교가 있다. 앞서 언급한 이경선은 대정중학원 물리, 화학 선생이었고 이승진(김달삼)<sup>17)</sup>은 역사교사였다. 대정중학원은 자주적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교사들의 영향으로 진정한 민족 학원으로 자리 잡아 나갔다. 이러한 영향으로 대정중학교 학생들은 1947년 3.1 발포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3.10 관민 총파업에 호응해 동맹 휴업에 들어갔다.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맹휴로 학생들에게 검거령이 내려지고 이를 피해 학생들은 서서히 입산하게 된다.

다음으로 조천면 북촌리의 야학에 대해 살펴보자. 북촌리 창흥사숙은 1920년 민족 독립을 위해 후진 양성에 힘써야 한다는 취지로 민가를 빌려 설립되었다. 이곳에서도 한글을 가르쳤고 학제는 4년제였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북촌리에서 부녀야학이 이루어진 시기는 1928년으로 추정된다.

“내가 17살 되던 해 야학이 생겨 1주일이 되니까 그때가 봄이라 미역조문을 탁 당한 거라. 북촌은 여자들이 쉴 사이가 없어서 야학이 꾸준히 이어지기는 어려운거야. 그래도 야학덕분에 까막눈을 면한 거야.”<sup>18)</sup>

북촌리의 야학설립과 함께 1927년 결성된 부녀회는 360명의 회원을 가지며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을 처리했다. 미역 조문 전에 미역을 따가는 자를 감시하고 어업조합을 상대로 해산물의 직인판매, 공동판매를 놓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16) 제주 4.3연구소, 『4.3장정』 1, 1990, 81쪽

17) 김달삼은 당시 대정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남로당 대정면당 조직부장을 역임했다. 1948년 4월 봉기 이후 남로당 제주지부당 총책으로 군사부장을 맡다가 8월에 해주 인민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월북했다. 강동정치학원을 졸업하고 제7유격대 사령으로 월남하여 빨치산 투쟁을 벌이다 피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라리 연구원 편, 『인명목록』, 『제주민중항쟁』 1, 소나무, 1988, 468쪽)

18) 제주 4.3연구소, 『4.3장정』 2, 1990, 50쪽

상여도 때었다고 한다.

한편 1930년대 이후 북촌리의 부녀야학은 잠시 침체기를 거쳐 해방 후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 일은 부녀회가 주력한 것으로 여성의 문맹퇴치를 위해 시작되었다. 부녀회가 주력한 또 다른 일로는 1부1처제 실시로 반(反)봉건적 주장이 제기되었다. 왜냐하면 당시 제주도 사회가 축첩의 관행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방 후 북촌리 부녀야학을 맡은 이는 이정례였다. 이정례의 남편인 윤태관이 야학운동을 하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운동을 했다. 그러나 윤태관이 해방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자 이정례가 야학운동을 이어받아 전개하게 되었다. 해방 후 북촌에서 활동한 여성의 대부분은 미혼이거나 이정례의 경우처럼 미망인이 대다수였다. 또 다른 경우는 결혼 후 친정으로 돌아와 독신으로 사는 경우도 있었다. 해방 초기 북촌리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도 여맹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진선도 이와 같은 경우이며 4.3초기 지명 수배되어 죽은 이정례의 일을 이어받은 김이완도 비슷한 경우이다.

“주로 김진선하고 해안부락을 돌아다녔습니다. 나는 무학이라 야학에서 글을 깨친 정도이고 진선이는 김녕 보통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대중연설은 주로 그가 했지요. 나는 직접 1:1로 사람을 만나는 일을 했고요. 처음에는 북촌리에서 일하다가 차차 조천면 전체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된 계기는 ‘여자도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토지는 3.7제를 실시하고’ 등의 내용보다 일부일처제를 실시하여 축첩제도를 없애고 봉건적 결혼제도(조혼, 민며느리제)를 철폐한다는 말이 좋아서였습니다. 나 자신이 그 제도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는 못 이룬다고 해도 후세들이나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어서 활동을 했습니다.”<sup>19)</sup>

북촌에서 해방 이전 보통학교를 졸업한 여성은 손가락으로 꼽히며 대다수는 야학을 통해 글을 깨우치고 사회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구좌면 덕천리에서의 부녀야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덕천에서는 해방 이전부터 간이학교마저 다닐 수 없었던 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녀야학이 활기를 띠고 있었다. 해방 이후에는 야학에서 공산주의 활동가들이 연설을 하기도 했다.

한편 여성의 사회의식 및 저항의식 형성에 영향을 준 것은 야학이외에도 소년단체의 영향이 있었다.<sup>20)</sup> 1920년대 한림면의 경우 금악리의 금악 소년회, 한림리의 한수

19) 제주 4.3연구소, 『4.3장정』 4, 1991, 48쪽

20) 1930년대 결성된 소년단체는 제주읍내에 제주소년단, 샛별 소년단, 소년성학회, 소년신명회, 소년선봉회, 소년탐흥회, 소년용진회가 있었고 화북소년회, 삼양소년회, 외도소년회, 소년수양회, 이호소년

플 소년단, 협재리의 협재 소년회, 용포리의 신조 소년회가 있었다. 한수플소년단의 중심인물이었던 이익우씨의 영향아래 민족의식이 고취되었음을 상기하는 고경홍씨의 증언이 있다.

“이익우씨는 나보다 5년 선배인데 내가 14살 때 그를 만나 침식을 같이 하면서 그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는 우리 청소년들로 한수플 소년단을 조직하여 훈련도 시키고 노래도 작곡하면서 민족사상을 고취시키려했죠. 그때 단원이 50명은 되었죠. 몇몇은 따로 야학공부를 했어요. 공부라는 것이 순 공산주의 서적들이죠.”<sup>21)</sup>

이 외에도 음악 소년회는 15-20세까지의 음악의 청소년이면 모두 가입했다. 숫자는 70~80명 정도였으며 소년 회원들에게 연설연습을 시키고 부락민을 대상으로 연극도 올렸다. 연극의 주제는 항일정신을 고취시키는 내용이었다.

1945년 10월경 한림면 인민위원회의 부녀부장에 선출된 오매춘의 경우 1920년대~30년대 한림면에서 활동했던 항일 소년단체인 한수플 소년단 출신으로 4.3당시 부녀동맹 위원장으로 입산하여 활동하다가 사살 당했다.

한편 한림면 인민위원회는 문교부를 두어 자치교육에 적극 관여했고 한림 중학원과 각 마을 국민학교를 관리하고 학습회, 강연회를 열어 계몽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제주도내 각 지역별로 야학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구좌면 김녕리에 1922년 12월에 김녕 청년회에 의해 연경야학회가 설립되었고<sup>22)</sup> 1925년 10월에 함덕리에 협성청년회가 설립한 노동야학회가 있었다.<sup>23)</sup> 구좌면 상도리에서는 같은 해에 상도리 청년회가 설립한 상도야학회가 있다.<sup>24)</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학과 소년회의 설립자와 교사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민족운동가였다. 또한 이들의 교육적 영향으로 제주 여성들은 문맹을 깨치고 민족의식을 고취해 나갔던 것이다.

---

회, 향상소년회, 일신소년회, 가파소년회, 모슬포소년회, 소년육영회, 성산소년회, 김녕소년회, 월중소년회, 하도소년회, 조천소년회, 신촌소년회, 함덕소년회, 제주소년연맹 등이 있었다 (제주 4.3연구소, 『제주 4.3장정』 5, 1992, 25쪽)

21) 제주 4.3연구소, 『제주항쟁』, 실천문학사, 1991, 216쪽

22) 동아일보 1922년 12월 2일

23) 동아일보 1925년 10월 19일

24) 동아일보 1925년 11월 14일

## 2. 1945-1948년 제주 여성들의 정치 ■사회적 활동

1945년 9월 10일 제주도 건국준비위원회 지부 결성을 필두로 15일 제주읍 인민위원회가 결성되고 미군정의 진주이전인 9월 22일에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인민위원회의 성격은 좌우 연합적 성격으로 온건적인 조직이었다. 이후 조선공산당 제주도당은 1945년 12월 9일 결성되었다.<sup>25)</sup> 그러나 공산당의 이름으로 활동하기 보다는 대중조직인 인민위원회 활동에 주력했으며 청년동맹 등 외곽 단체를 통해 대중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sup>26)</sup>

해방 후부터 1948년 4.3항쟁의 기간동안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활동은 남녀혼합단체에서의 활동과 여성독자 단체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왜냐하면 미혼의 여성과 학생신분의 여성들은 주로 민청과 민애청 등 남녀 혼합단체에서 활동한 반면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부녀회-부녀동맹-여성동맹 등을 통해 활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먼저 미혼여성과 여학생들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소년, 청년단체에 참여하는 여성들을 연령별로 구분할 수 있다. 미혼여성들 중 20대는 청년동맹-민청-민애청에서 활동하고 15~19세는 민청 산하의 소년부에 소속되었다.

청년동맹은 건준청년동맹을 모체로 하여 1945년 12월 10일에 결성되었다. 청년동맹은 도 청년동맹-읍, 면 청년동맹-리청년동맹-반청년동맹으로 구성된다. 제주도내 11개 읍, 면에서 전부 면청년동맹을 두고 있었으며 169개 부락에 거의 모든 리에 지회를 두고 있었다. 마을에서 이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사람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단일조직으로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맹원을 갖고 있었다.<sup>27)</sup> 이 청년동맹에는 여자부가 따로 조직되어 있을 만큼 젊은 미혼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청년동맹의 활동은 치안활동 외에 교육사업으로 야학을 설립하고 학습회, 독서회, 역사 강좌 등을 개최하여 문맹퇴치, 민족의식을 고취시켰고 강연회 및 용변대회를 열어 대중 계몽에 앞장섰다.

그러나 1946년 서울을 비롯하여 신탁통치 논쟁이 가속화되면서 민족 분열의 양상이 나타나자 진보적 청년들은 청년 단일전선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조선민주청년동맹을 조직하게 되었다. 서울시 민청 결성대회는 1946년 4월 22일에 개최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도 조선민주청년동맹(이하 민청)이 1947년 1월 12일 결성되었는데

25) 김민주, 김봉현,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1963, 대판문우사; 아라리 연구원, 『제주 민중항쟁』 2, 소나무, 1988, 14쪽

남로당 대정면책이었던 이운방은 조공 제주도당의 결성시기를 1945년 10월 초로 보고 있다.

26) 양정심, 『제주 4.3항쟁에 관한 연구-남로당 제주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균관 대학교 사학 과 석사학위 논문, 1995, 15쪽

27) 제주 4.3연구소, 『4.3장정』 5, 백산서당, 1992, 33~34쪽

읍, 면의 민청은 기존의 리 청년동맹을 바탕으로 곧 마을까지 뿌리를 내린다.<sup>28)</sup> 도 민청 결성에 이어 1월 25일에는 조천면 민청 결성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조천지서 주입까지 참석하여 축사를 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시 제주도 좌파 세력이 일반 대중에게 일체감을 심어주고 대중들에게 옳은 일을 하는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어 2월 10일에는 대정면, 2월 13일에는 성산면 민청 결성대회가 열렸다.<sup>29)</sup> 또한 제주읍 민청대회는 1947년 2월 16일 조일구락부에서 남녀 대의원 3백 명과 기타 일반 방청객 2백 명의 참여로 초만원에 이른 가운데 강대석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부녀동맹 위원장인 김이환이 개회사를 한 후 토의사항으로 3.1기념대회 행사의 건등이 토의되었다. 여성의 활약상을 짐작할 수 있는 서귀면 민청 대회가 1947년 2월 9일 열렸는데 이날 민청 부위원장에 허순위가 선출되었다.<sup>30)</sup>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음을 고려한다면 여성이 간부로 선출된 것은 그만큼 여성들의 활동이 적극적이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다.

민청의 조직 구성에 의하면 여자소년부(학생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청 및 민애청의 조직원은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민청 및 민애청 조직원으로서 학생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었다. 조천중학원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증언을 통해 조천중학원 학생들의 활약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학년에 입학하면 세포에 가입되는데 일정 정도의 학습기간이 지나면 교대로 두 사람씩 보증을 서 입당하였다. 학교 내 세포위원장, 조직부장, 선전부장이 있었고 도당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다.”<sup>31)</sup>

조천중학원은 1946년 설립되어 1948년 5.10단선거부 운동으로 강제 폐교당할 때까지 진보적인 교사와 마을 유지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학급의 편성은 1학년에 주간 한 학급에 야간 한 학급이었고 2학년이 주간이 A, B 두학급, 야간이 한 학급 있었다. 이때 A반은 남자반이었고 B반은 남녀 합반이었는데 한 학급 인원 총 55명 중 여학생은 20명 정도였다고 한다.<sup>32)</sup>

교재는 교사들이 마르크스 입문서의 내용을 주제로 한 프린트물을 나눠주고 방과 후 공부를 다시 할 정도로 교육열과 참여정도가 높았다고 한다. 당시 조천 중학원

28) 제주 4.3연구소, 『4.3장정』 5, 백산서당, 1992, 39쪽

29) 제주신보 1947년 2월 16일, 18일

30) 제주신보 1947년 2월 16일

31) 제주 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1, 한울, 1989, 52쪽

32) 제주 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1, 한울, 1989, 61쪽

교사들로 현복유, 김동환, 이덕구, 김민학, 김석환 등 있었다.<sup>33)</sup> 조천 중학원 교사들의 대부분은 일본 유학이 경험이 있는 지식인이며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온 20-30대의 젊은 층으로 보수 없이 자원하여 가르쳤고 교사의 90%가 사회주의사상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실제로 4.3항쟁 과정에서 대부분 끝까지 싸우다 죽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영향으로 조천중학원 학생들 70-80%가 직접 도당의 명령을 받아 주로 선전 배라를 붙이고 시위활동을 했다. 학생들은 4.3당시 입산하여 선전활동으로 이어져 주력하다가 많은 학생이 죽었다.

조천중학원의 여학생 비율은 전체학생비율로 볼 때 낮았지만 활동성은 컸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이전 조천면장을 역임하고 해방 후 남로당 위원장과 제주읍 인민위원회 대표를 역임한 김유환의 딸 김용언도 조천 중학원 1회 학생으로 정세에 환하여 학생시절 '뉴스페퍼'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활동성이 강하였다. 조천면의 2대 여맹 위원장이었던 이재옥의 딸 한금자도 김용언과 마찬가지로 조천 중학원 1회 학생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한금자의 언니 한경자는 당시 조천 중학원 수학교사이자 조천 면당 선전부장이었던 김민학과 결혼하여 함께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서북청년단에 의해 쫓가슴을 붙여 지지는 등의 심한 고문을 당했다.

한편 1947년 3.1대회에 대해 각 학교 3.1기념 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는데 학생들은 3.1기념대회날인 3월 1일 오전 9시를 전후해서 오현 중학교에 집결했다. 이날 오현 중학교에는 제주농업학교, 오현 중학교, 제주 중학교, 교원양성소 학생, 제주고등여학교 학생 등이 모여 3.1절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3.1정신으로 독립을 전취하자, 모스크바 3삼회의 절대지지' 등 정치적 구호도 내걸고 있다. 학생들의 이날의 행사는 제주도위원회가 주최할 제주북 국민학교 행사의 전위적 활동을 보여주었다. 이 시위에 대해 경찰은 3월 2일 하루 동안 학생 25명을 연행하였다. 연행된 학생들 중 여학생 6명도 포함되었다.<sup>34)</sup> 3.1대회이후 제주 읍 특별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학생부가 신설되어 학생들은 당에서 중요한 조직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다.<sup>35)</sup>

33) 현복유: 일본에서 대학을 나온 후 해방이 되자 제주로 돌아와 1946년 3월 이후부터 조천중학 원장을 역임하면서 국어와 사회과목을 담당했다. 1948년 남로당 제주도당 경리부장을 역임하고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죽었다. (위의 책, 255쪽)

김동환: 일본유학 후 돌아와 조천중학원에서 영어교사 역임했으나 4.3당시 몸이 아파 참여하지 못했다.

김석환: 조천중학원에서 역사를 가르치다가 4.3당시 체포되어 생사를 알 수 없다.(아라리 연구원, 『제주민중항쟁』 I, 소나무, 1998, 470쪽)

이덕구: 일본에서 수학한 후 해방 후 돌아와 조천중학원에서 역사와 체육을 담당했다. 1947년 3.1기념대회 이후 검거되어 고문으로 고막이 파열되어 청각장애로 고생했다. 1948년 8월 해주 대표자 대회 이후 항쟁지도부가 교체될 때 제 2대 유격대장으로 군사부 총책임이 되어 1949년 6월 7일 토벌대와 격전 끝에 자살하였다.(같은 책 479쪽)

34) 제주신보, 1947년 3월 8일, 3월 14일

35) 강용삼, 이경수, 『대하실록 제주 백년』, 태광문화사, 1984, 549쪽

그러나 민청은 미군정의 행정명령 제 2호(1947년 5월 16일)에 의거 불법단체로 지목되어 해산명령을 받았다. 5월 22일 제주도에서도 민청원에 대한 가택수사에 들어갔다.<sup>36)</sup> 이에 1947년 7월경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이하 민애청)으로 재조직되고 남로당의 통제를 받았다. 민애청으로 개편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은 8.15 제 2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좌익 총검거령을 내렸다. 이에 대부분의 민애청 소속 청년들은 지명수배를 받게 되어 비합법적 활동을 하게 되었다.

한편 1947년 7월 개편된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제주도위원회의 조직원이 청년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도 민청, 민애청에 가입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하귀중학교 여학생들도 한복으로 차려입고 '왓샤왓샤'를 외치며 3.1기념시위에 가담했다.<sup>37)</sup>

3.1기념대회에는 각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교원 양성소의 예비교사와 교사들이 대거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1사건 이후 경찰은 검거 선봉으로 많은 사람들을 체포 연행했는데 북초등학교 여교사로서 3.1대회에 참가했던 신영희씨는 포고령 제 2호 위반죄로 3천원의 벌금형을 언도받았다.<sup>38)</sup> 또한 경찰은 교원양성소 생도 다수를 피검해 6명의 여생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비공개적 활동 중에 하나가 때라 부작활동이었다. 1947년 6월 때라살포사건으로 초등교원양성소 남녀 학생 11명은 체포되어 경찰에 구금되었다. 또한 7월 15일에는 때라살포 및 무허가 집회 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판이 있었다. 문동욱 제형 8개월, 박윤옥 박중원은 각각 제형 8개월, 집행유예 3년, 이계형은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았다.<sup>39)</sup> 이때 민청과 민애청 출신들은 비합법적 활동을 전개하다가 집중적인 제재를 받게 되고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서서히 산에 오르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적 정세 속에 학생들의 활동에 불을 지핀 사건은 1947년 6월에 제주여중생들의 동맹휴학사건이었다. 당시 제주여중은 제주도 내의 유일한 여자 중등교육기관으로 3년제의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했다. 그런데 학생들은 이를 변경해 고등과를 설치해 5년제의 학제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동맹휴학의 표면적 주장으로 내걸었다. 이 사건으로 3학년 학생들이 연행되었다가 학부형회가 나서서 학교당국으로부터 다음해부터 실시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내자 이들 만에 풀려났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제주 주둔 미 CIC의 보고서에 의하면 학생들의 행동에 공산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는 정세분석을 상부에 보고하고 있다.<sup>40)</sup>

36) 제주신보 1947년 5월 26일

37) 제주 4.3연구소, 『미제사 말했수다』 1, 한울, 1989, 115쪽

38) 제주신보 1947년 4월 28일

39) 제주신보 1947년 6월 6일, 7월 6일

40) 미 6사단 「G-2일일보고서」, 1947년 6월 14일

이러한 사회분위기속에 7월 재편작업에 들어간 제주민전은 초대 도지사였던 박경훈을 의장으로 추대하여 8.15 제 2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고자 했다. 그러나 대규모 검거선중의 일환으로 8월 14일 박경훈 의장을 연행하고 사회인사 및 도청간부 30여명도 검거했다. 그러나 검거선중에도 불구하고 8월에는 하곡수집에 대한 농민 반발이 심하게 나타났는데 곡물수집 반대 삐라가 광범위하게 살포되기도 했다.

미군정과 경찰은 1947년 3.1기념대회 이후 제주도를 '조선의 작은 모스크바'로 규정하고 응원대와 서청을 파견해 검거에 나섰다. 이러한 강압적 조치는 제주도민들의 감정을 악화시켰다. 그런데 제주도민의 감정을 악화일로로 치닫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다. 1948년 3월 4일 조천지서에 연행되었던 조천중학원 2학년 김용철(당시 21세)이 유치 이틀만인 6일 별안간 숨진 것이다. 사인(死因)은 뇌출혈로 밝혀졌으나 경찰은 검사의를 협박하면서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 이 사건으로 조천지서 지서장을 비롯한 경찰관 5명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이 사건으로 조천 중학원 학생들은 항의시위를 벌였고 이 항의시위이후 경찰은 학생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다. 이때 주목받게 된 학생들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도망 다니다가 그길로 산에 오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한달 뒤인 4월 3일 일제히 한라산 오름에 봉화가 올랐다.

한편 여성 중 대표적인 민애청 간부였던 이선완은 북촌리 민애청 간부로 활동하다가 4.3당시 입산하여 무장대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1948년 11월 북촌리 무승기에서 젊은 여성 10여명이 총살될 때 사살 당했다. 사망 당시 20세 미만의 젊은 여성이었다.<sup>41)</sup>

여중생들도 당시 무장대를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성금모금에 앞장서기도 하고 입산하여 삐라작성의 선전부의 일에 참여하였다. 당시에 똑똑한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했고 경찰의 연행과 체포를 피하기 위해 부모에 의해 일본이나 육지로 강제로 나간 여학생도 많다고 한다.<sup>42)</sup>

지금까지 미혼의 젊은 여성들이 민청 및 민애청에서 활동한 모습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편 기혼여성들은 기존의 부녀회에서 부녀동맹, 여성동맹으로 이어지는 부녀단체를 통해 사회적 활동을 펴 나갔다.

해방 후 공산당 주도 아래 좌익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1945년 8월 17일 건국부녀동맹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건국부녀동맹은 대중적이지 못했고 좌우익의 결합체였기 때문에 우익여성단체가 대거 탈퇴하자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건국부녀동맹은 1946년 12월 22일 조선부녀총동맹으로 개편되어 민전의 산하단체로 활동하게 되었다. 부총의 결성은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전국농민조합총연

41) 제주 4.3연구소, 『미제사 말함수다』 1, 한울, 1989, 250쪽

42) 현정자(70, 제주시 연동, 2003 7월 29일 채록)증언

맹, 전국청년단체총동맹과 같은 전국적 규모의 여성대중단체를 결성하기로 한 조선공산당의 방침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sup>43)</sup> 그 후 1947년 2월 15일 남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개칭되어 조직 확대를 도모한다.

제주도에서는 1946년까지 부녀동맹이라 하고 1947년 2월 이후에서부터는 여성동맹이라 불렀다. 제주도에서 부녀동맹 활동 시기는 합법화된 공간이었지만 여맹으로 개칭된 이후로는 거의 비합법적으로 활동을 전개한다.

제주도 부녀동맹 결성대회는 전국에서 가장 늦게 이루어졌다. 부녀 동맹 결성대회는 조일구락부에서 대의원과 방청객, 내빈 등으로 초만원이 된 가운데 1947년 1월 25일 거행되었다. 각 읍면 대의원 3백여 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김이환의 개회사로 시작되어 임시 집행부 선거에 들어갔다. 임시 의장단으로 김이환, 고인선, 강어영을 선출했다. 대의원 2,3명에 의해 명예의장에 민전위원장 허헌, 부총위원장 유영준, 북조선 부총위원장 허정숙이 추천되었고 입법위원의 본질을 설명해 달라는 긴급동의가 있었다. 인민위원회의 축사와 각계의 메시지 낭독 후 선언, 강령, 규약이 통과되고 임원선거로 위원장 김이환, 부위원장 고인선, 강어영이 선출되고 고덕순을 비롯하여 80여명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선거가 있는 후 토의사항으로 들어가 조직강화, 계몽운동, 재정문제 등에 관하여 장시간 진지한 토의가 있는 다음 퇴장 시 10월 인민봉기사건의 희생자 유가족 위문금을 자발적으로 거출한 것이 2천 4백여 원에 달했다고 한다.<sup>44)</sup>

한편 제주읍 부녀회 정기대회는 1947년 2월 21일 오전 11시부터 제주읍 조일구락부에서 대의원 다수의 참여아래 개최되었는데 동 회를 부녀동맹으로 개편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조직 후 계몽운동 등에 많은 활약을 해오던 부녀회는 이로써 해소를 보았다. 대회는 강어영의 사회로 개최되어 김이환의 개회사가 있는 다음 의장단에 김이환, 강어영을 선출하였다. 위원장에 고인식, 부위원장에 양청렬, 김금순, 집행위원에 강소희외 30명을 선출했다. <sup>45)</sup>

제주읍 부녀회가 부녀동맹으로 개편된 것처럼 각 읍, 면의 부녀회는 제주도 부녀동맹 결성대회 이후 부녀동맹으로 개편되어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활동하게 되었다.

한편 대중적 성격의 부녀동맹 이외에 여성조직으로는 조선공산당 제주도당 부녀부가 있었는데 전위조직의 성격을 띠었다고 볼 수 있다. 남로당 부녀부는 당의 13개 부서를 중요성에 따라 구분할 때 노동부, 농민부, 청년부와 함께 2급에 분류된 부서로서 중요시되었다.<sup>46)</sup> 남로당 부녀부는 부총이나 여맹의 프락치를 통해 당의 정책을

43) 김남식, 『남로당 연구』, 돌베개, 1984, 96쪽

44) 제주신보 1947년 1월 28일

45) 제주 신보 1947년 2월 24일

집행했다.

한편 1947년 3.1기념대회 행사 준비위원회 모임은 2월 17일 관공서를 비롯한 사회단체, 교육계, 유교, 학교단체 등 각계각층을 총망라한 인사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제주읍내 김두훈의 집에서 열렸다. 이 모임에서는 제반사항에 대해 토의한 다음 3.1기념 투쟁 제주도위원을 선정하였다.<sup>47)</sup> 그런데 3.1기념 투쟁위원회에 선임된 위원명단에 선전동원부에 부녀동맹 부위원장으로서 선출된 강어영(당시 35세)과 이정숙(당시 30세)의 이름이 보인다.<sup>48)</sup>

3.1 시위를 계기로 제주도에서는 미군정과 의 정면대결이 시작되는데 3.1기념대회준비위에서의 여성의 참여와 대정면 3.1기념대회에서 여성 활동가인 이경선이 연설할 정도로 부녀동맹원들의 활동은 적극적이면서 중요시되었다. 47년 3.1기념대회는 다른 지방에서는 면단위별로 기념식을 갖고 제주읍, 조천면, 애월면 3개 지역은 공동으로 제주 북국민학교에서 거행되었는데 3만 명의 도민이 참가했고<sup>49)</sup> 대정면 지역의 경우 6천여 명이 참가했다. 전 도적 지지 속에 거행된 3.1기념대회에서 여성들의 활약상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대하실록 제주백년』에 기록되어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소위 부녀동맹원들의 날뛰는 꼴이다. 붉은 단장을 두른 그들은 신들린 여인네처럼 군중 앞에 나서서 마치 영웅이나 된 양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해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 맞서 시비와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가장 앞장서 지휘하는 여인은 이정숙이었다.”<sup>50)</sup>

이정숙은 당시 제주읍 출신으로 여학교를 나온 30세의 독신여성으로 4.3당시 입산하여 이덕구 밑에서 투쟁하다가 1949년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한편 남로당 제주도당의 3.1사건 진상보고서에서도 부녀동맹의 용맹성을 칭찬하고 있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부동(婦同)부대가 단독으로 무장경관, 기마경관 등의 각종 비열한 그리고 강력한 저지에 굴하지 않고 용감히 싸워 경계선을 돌파하고 오종 교정에의 합류에 성공한 것이다.”<sup>51)</sup>

46) 1급은 조직부, 선전부, 간부부, 3급은 문화부, 총무부, 조사부, 협조부, 구호부, 재정부

47) 제주신보 1947년 2월 18일

48)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사』, 1990, 283쪽

49) 독립신보 1947년 3월 4일

동아일보 1947년 3월 14일

남로당 제주도당은 진상보고서에 조직군중 만 6천명, 미조직 군중 4천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남로당 제주읍위원회, 각 야체이카 귀중」, 제주 4.3연구소 엮음, 『제주항쟁』, 1991, 181쪽

50) 강용삼, 이경수 편저, 『대하실록 제주 백년』, 태광문화사, 1984, 552~553쪽

3.1기념대회 시위에 앞장선 이들은 바로 부녀동맹원들이었던 것이다.

한편 기념행사 후에 가두시위가 이어졌는데 제주도 군정과 경찰은 시위를 불허한다는 방침아래 관덕정 앞에 용원경찰과 미군을 포진시켜 발포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발포는 시위행렬이 지나간 뒤 시위를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을 향해 겨냥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도민들의 분노는 커져갔다. 이 사건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일도리 박재옥(당시 21세)여성에 대한 인민장이 도두리에서 열렸다.<sup>52)</sup>박재옥은 당시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총에 맞은 아기도 3일 후에 사망하고 말았다.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발포에 대해 제주도민은 3월 10일 관민 총파업으로 맞섰다. 또한 3.1사건 희생자 유가족 조위금 모금운동이 항의성을 띠고 벌어졌는데 제주신보 3월 14일자에 의하면 대정인민위원회에서 대정면 모금운동을 주도해 성금 3만원을 돌파했다는 보도가 있고 제주여중을 비롯한 관내 모든 중학교 학생들도 성금을 모아 신문사에 기탁했다.<sup>53)</sup>또한 제주 부녀동맹 31,360원, 서귀포 부녀동맹 4,790원, 신촌 민청 485원 등 여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3.1기념대회 시위사건으로 구속된 자는 1947년 4월 5일 현재 230여명에 달하는데 그중 에 부인들이 34명에 달한다.<sup>54)</sup>부녀동맹 위원장 김이환은 3.1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되었다.<sup>55)</sup> 김이환은 피고진술에서 당시 성명서에 대해 당일의 진상을 아는 자는 누구나 성명서를 발표 아니치 못할 것이라며 행동의 정당성에 대해 진술하고 6개월의 형을 언도받았다.<sup>56)</sup>또한 당 부녀부장 고진희는 미군정 포고령 제2호 및 제19호 4조 위반으로 미 군정재판에 회부되어 때라 살포, 성명서 발표, 무허가 집회 주도 등의 혐의로 3년 집행유예에 제형 5개월, 벌금 2천원을 언도받았다.<sup>57)</sup> 그녀는 4.3발발 후 입산하여 활동했다가 48년 8월 해주대회 참가를 위해 제주도를 떠났다. 월북하여 8월 해주 대회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 1기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 후 남하하여 빨치산 활동을 하던 중 1951년 2월 군경에 체포되었으나 비밀유지를 위해 자살하였다.

부녀동맹원에 대한 대대적 검거의 이유는 3.1기념대회에서 인원동원이 주로 부녀동맹과 민청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51) 「남로당 제주읍위원회 각 아체이카 귀중」, 제주 4.3연구소 엮음, 『제주항쟁』, 실천문학사, 1991, 186쪽

52) 제주신보 1947년 3월 8일

53) 제주신보 1947년 6월 18일

54) 독립신보 1947년 4월 5일

55) 독립신보 1947년 4월 5일

56) 제주신보 1947년 4월 30일

57) 제주신보 1947년 5월 12일

한편 1947년 8.15 제 2주년 기념행사를 기점으로 미군정과 좌익간의 긴장은 고조되고 학생들의 활동과 여성들은 몰래 뼈라를 살포하고 비합법적 투쟁으로 전환한다. 1948년 2월 안덕면 사계리 경찰 구타사건을 시작으로 17차례의 시위와 6개의 경찰서가 공격당하고 각종 뼈라가 배포되었다. 이에 미군정과 경찰은 검거령으로 맞섰다. 4.3발발 바로 직전인 3월에는 경찰의 고문에 의해 민간인이 사망하고 서청과 경찰의 지속적인 탄압이 계속되자 제주도민들은 자위적인 차원에서 무장 항쟁을 결행하게 된다.

1948년 4월 3일 새벽 1시 한라산과 제주도 지역의 89개의 오름에서 일제히 봉화가 울려지고 인민자위대에 의한 경찰지서 공격이 시작되었다. 남로당 제주도 위원회와 민중들은 '미군의 즉시 철퇴, 단독 선거 절대 반대, 이승만 타도, 용원경찰대와 테러 집단의 즉시 철수, 조선 통일 독립 쟁취' 등의 호소문을 통해 민중생존권 차원의 민중항쟁과 단정 단선을 반대하는 통일독립 쟁취를 위한 통일운동 등의 성격을 띠고 봉기한 것이다.

4월 16일 단선저지 무장 봉기 투쟁의 선언과 더불어 무장대의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중 투쟁이 병행되었는데 이때 마을별로 활동한 것은 주로 학생과 젊은 여성들이었다. 실제로 최찬숙(당시 20대)과 윤장욱의 딸은 한라산 무장대에 연락해주는 활동을 했다는 죄목으로 학살당하기도 했다.<sup>58)</sup>

“사건은 각 면단위로 편성된 인민자위대를 선두로 여맹원과 아동단원까지 포함하는 남로당의 각종 외과조직을 총동원한 3천여 명의 무장 및 비무장 병력에 의해 선도되었다.”<sup>59)</sup>

또한 방첩대 정보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 30명을 포함한 폭도 80명이 선출리 지역에서 훈련받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여성 100명이 포함된 폭도 550명이 표선면 세화리의 인근 산악지대에 머물고 있으며 최정예 폭도 집단으로 전해진다고 기록하고 여성대원들은 연락과 선전, 물자수송 임무를 맡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sup>60)</sup> 이는 여성동맹원들이 4.3당시 무장대의 음식과 식량보급과 선전선동 및 연락 활동을 주로 담당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산 사람들(무장대)이 먹는 말고기는 처녀 가슴에 품어서 갔다가 먹었다는 증언을 통해서도 젊은 여성들의 보급책으로서의 활동상을 짐작할 수 있다.<sup>61)</sup>

58) 제주 4.3연구소, 『4.3장정』 3, 1990, 69쪽

59)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 전략』, 박영사, 1983, 156쪽

60) 주한미육군사령부 정보일지, 1948년 8월 9일~10일

61) 제주 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1, 한울, 1989, 125쪽

이와 같은 증언에서 보여지 듯 여맹원들은 심지어 무장대에 자원 참가하여 계몽선전과 대중조직 활동을 의욕적으로 진행했다. 남로당 제주도 위원회가 남로당 중앙위원회 서신에 보낸 답 서신에 의하면 소학생과 부녀자들이 심지어 국군장병에게 격문을 배부하는 대담한 투쟁을 하기도 했다는 보고내용이 있다.<sup>62)</sup>

한편 무장대의 유격활동에 남녀구분 없이 참여시키고 있는 다음사례를 통해 여성들의 활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4.3사건이 나니까 여자가 남자고 막 창덜 들썩 훈련해수게. 훈련을 허렌 하영 우리 여자들도 22-25세까지 이제 막 결혼한 사람 외에는 문짝 이름 올린 청년단을 만들영,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우리 위의 사름은 문짝 하귀국민학교로 가서 훈련을 막 받아서. 또 구업, 애월, 광령, 하귀 등 각 부락 청년대에서 잘하는 사람으로 뽑앙 저 구업국민학교 마당에 강 시합덜 하곡 해수게.”<sup>63)</sup>

이러한 증언을 통해 당시 4.3이 발발하자 마을 단위로 청년단을 만들어 여성도 무장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여성들은 일제 시대의 해녀투쟁의 맥을 이어 3.1시위, 단선저지투쟁, 4.3항쟁에서 남성 못지않은 활동을 보여주었다. 초기 항쟁에서 무장대에 합류하여 때라 살포, 선전 선동, 정보수집, 연락 등 대중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항쟁이 길어지고 무자비한 토벌이 자행될수록 토벌대를 피해 한라산으로 숨어든 제주도민들 특히 남성들에게 여성들은 은거지와 식량을 제공했다.<sup>64)</sup>

또한 여성동맹원들은 변절하는 법이 없고 무학출신이 많아 암조 해독을 못해 불러주면서 활동을 했지만 전향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고 한다.<sup>65)</sup>

당시 여성동맹의 여성 활동가들은 90%가 과부 아니면 두 번째 부인이거나 결혼을 했어도 혼자 사는 독신여성인 경우가 많았다.<sup>66)</sup> 해방 후 복촌 국민학교에서 복촌리 부녀야학을 부활시킨 이정례의 연설을 들은 고정임 할머니는 당시 이정례는 민족독립운동을 하던 윤태관의 각시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당시 미망인의 처지였다고 회

62)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연구원 엮음, 『제주민중항쟁』 III, 소나무, 1989, 38쪽  
노력인민, 1948년 11월 7일

63) 제주 4.3연구소, 『이제사 말해수다』 2, 한울, 1989, 41~42쪽

64) 한림화, 『Jeju Women as Civic Actors in the Jeju April 3rd Uprising: from humanism to Civic Engagement』, 『Conference to havard University's』, 2003. 4월 25일

65) 제주 4.3연구소, 『이제사 말해수다』 1, 한울, 1989, 17쪽

66) 대표적인 여성으로 고진희(강규찬의 두 번째 부인), 김진선(초혼 실패후 독신으로 활동), 이정숙(독신여성) 등이 있다.

상한다.<sup>67)</sup>

한편 여성 활동가의 경우 경제적으로도 독자적으로 생활해가면서 집안의 생계를 직접 담당했던 사람들이었다. 바느질 솜씨가 좋아 그 일로 생계를 꾸렸던 조천면 초대 부녀회장을 지내고 초대 여맹위원장이었던 김동환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한편 여맹의 지도부를 보면 당시 각 면 여맹위원장은 최소한 보통학교를 마친 여성으로 독립운동가 집안출신이 많았고 대중적 신앙과 품성이 뛰어났다. 또한 부위원장은 대중적 신앙과 품성이 뛰어난 여성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여맹위원장 김이환의 경우처럼 집안이 독립운동가 집안이거나 오빠가 사상가인 경우가 많았다. 김이환은 조천읍 조천리의 항일운동가 김시학의 딸로 태어났고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이하 민전)의 임시의장단인 고창무의 아내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민족운동가 집안의 출신여성으로 활동했던 여성은 다음과 같다. 구좌면 부녀동맹 위원장이었던 신농옥이 있으며 신농옥의 집안은 일제시대 민족운동가 집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신농옥의 남편은 김시곤인데 1932년 해녀에 대한 인권유린에 맞서 해녀 1천명과 함께 세화리잠녀 투쟁을 이끌었던 민족 운동가였다. 또한 조천면 부녀동맹 부위원장이었던 김옥희의 부친은 김시범이었는데 1919년 3.1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장본인이다. 또한 고진회도 독립운동가이자 해방 후 제주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강규찬의 두 번째 아내이기도 했다. 이는 남별 차별 등 봉건적 질서에 대한 저항정신을 가지고 활동한 것이다. 이 당시 사상가나 독립운동가 출신들은 일제시대부터 선구자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존경받는 선망의 인물이었으며 이러한 인물들을 오빠나 아버지, 남편으로 관계 맺어진 여성들의 경우 부녀동맹의 가입이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여성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연설 등 대중적 지도와 연락업무, 삐라 살포 등 조직이 맡긴 일을 헌신적으로 수행했다. 실제로 허남익과 허남섭, 허남홍 형제의 경우 허남익이 당시 선출 간이학교 다니면서 남로당에 가입하고 난 후 나머지 형제들도 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그들의 부인들도 여성동맹 활동을 하다가 4.3당시 함께 죽었다고 한다.<sup>68)</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맹원 간부들의 대부분은 민족운동가 집안 출신이거나 교육의 혜택을 받은 소위 신여성이었고 한번 결혼에 실패 하여 독신으로 살고 있었거나 미혼인 경우가 많았다.

4.3항쟁의 와중에 대부분의 여맹간부들은 사살 당했고 이정숙과 고진회는 8월 제주 인민대표자대회에 제주대표로서 북한으로 갔다.<sup>69)</sup>

67) 제주 4.3연구소, 『4.3 장정』 4, 1991, 46쪽

68) 제주 4.3연구소, 『이제사 말합시다』 1, 한울, 1989, 130쪽

69) 이호리 여맹위원장 이순희 사살, 창천리 여맹원 김순녀 사살, 도 여맹위원장 김진선 등은 총살되었다.

이승희, 「한국여성운동사 연구」,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0, 163~164쪽

그러나 대다수의 여맹원들은 4.3당시 입산하여 활동하다가 토벌대에 의해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다. 이호리 여맹위원장 이순이와 창천리 여맹원 김순녀도 사살당했다. 한 토벌대의 여맹원에 대한 사살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잔인했다. 김옥희의 경우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했고 죽은 후 토벌대는 사체를 대중에게 보여주며 전시용으로 이용했다. 또한 북촌리의 신춘양은 몸이 두 쪽으로 찢겨 죽었다고 한다. 또한 애월의 부녀동맹을 주도했던 오매춘은 무장대 활동하다가 잡혀는데 그녀를 죽인 한 병사는 너무도 잘 죽었다며 춤을 춰 당시 토벌대의 여맹원에 대한 인종적 증오의 모습을 짐작하게 한다.<sup>70)</sup>

오매춘과 절친한 구우보통학교 동창생 할머니는 유관순같이 일을 했던 매춘이의 명예회복이 될 날이 있어야 한다며 당시 여성들의 활동을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했다.<sup>71)</sup>

지금까지 해방 이후부터 4.3항쟁에 이르기까지 제주여성들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 여성들의 활동은 몇 가지의 특징을 보인다.

첫째, 각 리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던 부녀회가 부녀동맹으로 결집하고 여맹으로 개편되는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자생적으로 조직된 부녀회에서 부녀동맹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결혼의 유무와 연령에 따라 여성들의 조직 활동은 다르게 나타났다. 기혼여성은 부녀회에서 부녀동맹으로 여성동맹원으로 개편되는 반면 미혼여성의 경우는 주로 민청이나 민애청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셋째, 여맹지도부를 보면 대부분 교육의 혜택을 받은 인텔리 여성으로 지식인 집안출신자가 많고 기혼자 중에서도 결혼에 실패하여 독신으로 살고 있거나 미망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남편이 활동가인 경우가 많았다.

넷째, 전국적으로 좌, 우의 이념적 대립에 의해 여성단체들도 분열의 양상을 띠는 반면 제주도 여성단체들은 자생적인 부녀회, 부녀회들의 결집체인 부총, 여맹으로 개편되면서 이념적으로 단일한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제주지방 인민위원회 결성과정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제주지방의 경우 면단위, 군단위의 인민위원회와 부녀회가 결성된 후에 제주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인민위원회가 결성됨으로써 상향식의 조직원리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제주여성들은 해방 전후 야학을 통해 문맹을 해소한 경우가 많았는데 야학지도자들의 경우 민족운동가로 사회주의 사상가가 많았으며 이들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사회의식이 고취되었던 것이다.

70) 제주 4.3연구소, 『4.3장정』 3, 전예원, 1990, 62~63쪽

71) 제주 4.3연구소, 『제주항쟁』, 실천문학사, 1991, 274쪽

다섯째, 제주여성들의 활동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는 일부일처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족첩제도를 없애고 봉건적 결혼제인 민며느리, 조혼 등을 철폐하라는 반(反)봉건적 이유에서 시작했지만 3.1기념 시위, 단선저지 투쟁, 4.3항쟁을 겪으면서 잔인한 토벌과 탄압에 의해 반(反)미와 반제 등 정치적 의식으로 고양되었다.

지금까지 해방 후부터 1948년 4.3항쟁에의 참여과정에서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여성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여성은 어느 정도의 교육의 혜택을 받거나 항일독립운동가 집안 출신이거나 결혼한 여성의 경우 남편이 공산주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특별하게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갖지 않은 제주의 여성들은 4.3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어떠한 존재형태를 보였는가?

이에 대해 4.3시기동안의 여성의 인권유린의 실상을 고문, 성폭력, 강제결혼, 학살 등 네 가지의 실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 II. 4.3항쟁과 여성의 인권유린

### 1. 고문의 실태

1948년 4월 3일 무장 봉기 발발 이후 군과 경찰은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무장대와 연결가능성이 있는 주민이든 그렇지 않은 주민이든 가리지 않고 주민들에 대한 강압적 검거와 취조가 잇따랐다.

취조에는 혹독한 고문이 뒤따랐고 혹독한 고문은 여성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무력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히 잔인했다. 여러 증언을 통해 밝혀지는 여성에 대한 고문의 공통적 특징은 모두 제일먼저 취조에 들어가면 여성의 옷을 모두 벗겨 여성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감을 심어주고 심지어 자신의 방어능력을 상실케 한다. 모진 고문은 사건과 관계없는 아는 사람의 이름이 튀어나올 정도로 허위자백을 낳게 했다.

다음은 고문으로 인해 허위자백을 한 경우로 증언을 통해 당시 여성들의 고문실태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난 재판을 받을 때도 버틸 생각을 못했습니다. 옷도 모두 벗겨서 심한 고문을 하는데 어떻게 안 했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알몸 상태에서 손가락, 찢목지에 전기 고문을 하고 물고문 및 몽둥이로 전신을 구타당했습니다. 고문을 받으니 난 아기도 못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가 약을 잘해줘서 용케 아이는 낳긴 했습니다. 난 그때 쇠쫓매로 맞은 것 때문에 지금도 허리 양쪽이 다 튀어나왔습니다.”<sup>72)</sup>

위의 증언에서처럼 여성에 대한 고문은 당시 여성을 나체로 만든 후 취조를 하기 시작했던 사례가 많다. 여성의 옷을 다 벗겨서 천장에 매달아서 고문했다는 증언이 여러 사람에게서 발견된다. 여성은 강제로 나체가 되어 많은 남자 수사관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여성자신에겐 치욕적인 사건이며 굴욕적일 수밖에 없다. 여성에 대한 고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남성취조관은 여성의 몸을 강제로 벗겨 그것을 즐기고 희롱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이중의 고통을 느끼게 했다. 국가공권력을 악용한 여성 인권유린의 실상은 고문을 통해서 생생히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러한 사실은 한 경찰관의 직접적인 증언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당시 경찰이었던 김호점씨는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한다.

“1948년 11월 경찰서에서 숙직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의 비명 소리가 나서 도저히

72)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 「4.3진상조사보고서」, 2003, 520쪽.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취조실로 가보니 한 여자가 나체인 상태로 거꾸로 매달려 고문당하고 있었어요. 내가 일본도를 들고 가서 화를 내니 취조하던 최난수는 도망가 버렸습니다.”<sup>73)</sup>

당시 직접 고문을 당한 김기순 할머니는 지금도 몸서리를 치며 얘기를 꺼냈다.

“나도 제주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가자마자 엄지발가락만 줄을 묶어 천장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는 ‘쇠쫓매’로 마구 때렸습니다. 실신할 지경에 이르자 경찰서 급사가 들어와 이름이 같은 여자를 잘못 데려온 것 같다고 하는 말이 어렴풋이 들리더군요. 이제 살았다고 안도했습니다. 무고함이 밝혀졌음에도 난 다시 헌병대로 넘겨졌습니다. 거기선 전기고문을 받았는데 전기가 몸에 통하면 기절하게 됩니다.”<sup>74)</sup>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죄의 유, 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데려다가 고문을 자행한 것이다.

게다가 남편이나 동생이 남로당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문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는 빨갱이의 부인이고 동생으로 인식하여 한사람의 여성으로 인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천중학원 교사를 하다가 입산하여 면당 선전부 책임을 맡은 김민학의 처 한경자는 나체로 고문당하다가 서북청년단에 의해 젓가슴마저 불에 지지는 등 처참한 고문을 당했다.<sup>75)</sup>

한편 4.3 당시 산에 쌀을 올렸다가 곤욕을 치른 이춘형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나는 1949년 1월 경 여러 사람과 함께 경찰서와 헌병대로 끌려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손을 뒤로 묶은 채 천장에 매달아 놓고 때렸어요. 헌병대로 옮겨진 후 전깃줄을 엄지손가락이나 뺨에 대는 전기 고문을 받았습니다.”<sup>76)</sup>

한 여성은 입산자의 아내로서 자신 혼자 고문을 당하고 시집식구들을 살린 경험을 털어 놓는다.

73)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4, 전예원, 1997, 223쪽

74) 같은 책 222~223쪽

75) 제주 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1, 한울, 1989, 59쪽

76)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4, 전예원, 1997, 234쪽

“당시 안덕 상황에 살았는데 남자들이 입산하자 마을사람들을 모아놓고 총살을 했는데 그때 3살 된 아기가 총에 맞아 죽고 나 혼자 살아남았어. 근데 경찰은 부상당한 나를 다시 체포해서 취조 하더군 그러나 시댁식구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시댁식구들을 모른다고 잡아땀어. 나 혼자 잡혀가 온갖 고초를 당했지. 지금도 그래서 보건소에 다니는 거지.”<sup>77)</sup>

자신 혼자의 희생만으로 더 큰 희생을 막아보고자 했던 여성의 행동에서 당시의 입산자 가족에 대한 광범위한 검거나 학살을 예측할 수 있다.

“음력 10월인데 우리 마을이 제일 먼저 피해를 봤고 그 다음 소개시명 다른 마을도 다 불을 붙여 부렸어. 젊은 부인네덜 봐지믄 서방 내노라 두들겨패고 40이 넘은 부인에게는 아들 내놓으라고 두들겨 패고. 그 당시 두들겨 패는 것은 아주 야만적이야. 총 개머리관으로 머리, 얼굴, 가릴것이 없어. 이런 야만적인 행동이 없어. 경찰이 주로 이북 서청덜인디.”<sup>78)</sup>

“여자 보믄 서방내놔라허다가 심어가믄 맞안덜 많이 죽었주게. 함덕이나 조천지서로 잡아가는디 갔단 덜 오믄 영덜이가 다 문드러지곡, 무릎 안쪽에 장작을 끼워놓고 그 위에 사름덜이 올라산 지근지근 불르믄 다 반병신이 되어불어.”<sup>79)</sup>

한편 토벌대는 임신 중이던 여성에게도 만행을 멈추지 않고 처참하게 고문을 자행했다. 이는 빨갱이의 씨를 잉태한 없어야 할 인종으로 인식하여 인간취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뱃속의 아기는 토벌대에게는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 아니라 없어야 할 종자였던 것이다.

당시 상황을 잘 말해 주는 차경구 할머니의 경험담을 들어보자. <sup>80)</sup>

“산에서 왔는데 이집이 쌀을 준다기에 들렀다며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선홀리에 군인은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 산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난 쌀이 없다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나를 끌어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젊은 이들은 피신생활을 했기에 마을에는 거의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함덕 국민학교로 끌려간 후 송당리 군인 주둔지로 갔습니다. 난 그곳에서 보름간 살면서 고문을

77) 양춘계(78세 대정 상모1리, 2003년 7월 31일 채록)증언

78) 제주 4.3연구소, 『미제사 말함수다』 1, 한울, 1989, 81쪽

79) 같은 책, 104쪽

80)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4, 전예원, 1997, 321쪽

많이 받았어요. 뒤로 몽둥이를 끼운 채 무릎을 꿇려놓고 위에서 마구 밟았습니다. 지금도 잘 걷지 못합니다. 난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임신했다고 사정했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유산됐습니다.”

같은 사례로 당시 무장 대원이었던 이삼룡은 1948년 2월 중순경 체로될 무렵 아내와 함께 취조를 당했는데 당시의 심한 고문으로 인해 태아를 사산했다고 한다.<sup>81)</sup> 강도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 시절을 회고한다.<sup>82)</sup>

“우리 남편은 이장이었는데 사태가 나니까 몸자공급을 했다는 이유로 죽고 나도 끌려갔어. 임신한 상태에서 고문당하고 몰매를 맞아 놓으니 아기가 태어나서 힘없이 죽어 버렸지.”

임신한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인간이 아니라 경찰에겐 없어야 할 폭도의 가족이며 빨갱이의 생명을 잉태한 위험스런 존재였던 것이다.

계계순은 1948년 12월 학교에서 연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갔더니 무장대에게 음식과 정보를 주었다며 경찰에 연행되어 갔다. 당시 임신 6개월이었으나 심한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 그 고통으로 임신 8개월 만에 아기를 사산했다.<sup>83)</sup>

이 고통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지난 50여 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당시 여성의 죄의 유, 무에 상관없이 생명을 잉태한 몸을 향해 고문과 구타를 일삼은 경찰은 더 이상 한 여성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제주사회의 공동체 문화를 재생산 할 몸으로 보았던 것이다.

1948년 11월 읍내 유지급 여성들이 헌병대에 가득 찼다. 주로 부녀회 시절의 간부들이었다. 대부분부의 간부들은 미리 피신했지만 미처 피신하지 못한 여성들의 피해가 컸다. 강염숙씨의 증언을 들어보자.<sup>84)</sup>

“헌병들은 부녀회가 부녀동맹으로 바뀐 후 간부들의 명단과 활동상황을 밝히려고 추궁했어요. 부녀동맹 간부였던 양정열씨와 산에 쌀을 올린 혐의를 받은 홍종춘 씨는 전기고문을 받았습시다.”

지금까지 여성에 대한 고문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성에 대한 고문의 실태

81)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 「4.3진상조사보고서」, 2003, 531쪽,

82) 강도화(81세, 안덕 서광 1리, 2003년 7월 31일 채록)증언.

83) 제주 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 2003, 531~532쪽

84)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4, 전예원, 1997, 225쪽

의 한 사례로서 여성을 나체로 만든 후 고문을 시작한 경우가 있다. 고문자는 고문으로 명들어가는 여성의 몸을 보며 자신의 폭력적 힘을 과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남성고문자의 성적 욕망이 각인된 여성의 나체는 고문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력이 행사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시용이었던 것이다.

또한 임신한 여성에 대한 고문의 자행은 레드 콤플렉스에 의한 것으로 여성의 몸을 빨갱이 및 공동체의 재생산의 상징으로 인식한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즉, '빨갱이 집단=제주도=남한의 모스크바=빨갱이의 종자잉태=임신한 여성의 몸'으로 인식하는 등 인종 청소적 성격을 갖는다. 임신한 여성의 뱃속의 아이마저 죽임으로써 제주도 사회의 생명력과 존속성에 대해 상징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 2. 성폭력의 실태

1948년 6월 9일 수십 명의 경찰과 대청 단원들이 마을을 포위한 후 학살 및 방화를 저지른 후 오라마울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그때 경찰대는 마을 사람들을 한곳에 집결시켰다. 경찰은 마을사람들에게 마을을 떠난 입산들의 소재를 대라며 주민들을 뒤달하기 시작했다. 그날 수난을 당했던 고난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내 며느리를 붙잡아 공회당 터로 끌고 갔어. 그리곤 며느리를 결상 위에 누인 후 배 위에 긴 나무를 깔아놓고 두 놈이 통나무 양쪽에 앉아 '네 서방 있는 곳을 대라고' 고문했지. 차라리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달려드니 내 뺨을 때리면서 계속 그 짓을 했어. 참으로 기막힌 일이었지.”<sup>85)</sup>

토벌대에게 여성은 나이가 많아도 존중받아야 할 연장자도 아니고 오직 집안 남성 대신 그들의 분풀이를 할만한 약자였던 것 같다. 토벌대에게는 사람으로 지켜야 할 예의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의 반인륜적 행위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었다. 경찰은 피신한 청년들의 소재를 추궁하다 홍문봉의 아버지와 어머니, 부인을 나오도록 했다. 경찰은 시아버지를 앞드리게 한 뒤 며느리를 등위에 타도록 했다. 역시 말 타는 흉내를 내도록 했다. 그런 다음에 또다시 시어머니를 말로 만들고 며느리를 그 위에 타게 했다. <sup>86)</sup>

이러한 사례는 여성에 대한 성적 모욕뿐만 아니라 반인륜적인 행위를 강요함으로써 치욕과 굴욕감을 심어주어 공동체의 사회문화를 파괴하는 토벌대에 의한 성폭력

85)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265쪽

86) 같은 책 266쪽

의 다의적 성격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여 이 당시 제주도안에서는 '말 태우기'란 말이 돌 정도였다.<sup>87)</sup>

한편 용원경찰대는 5월 30일 한림면 청수 2구를 포위 기습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끌어내어 수룡국민학교 마당에 집결시켰다. 토벌대는 주민들을 모아 놓고 죄의 유무를 묻지 않고 심하게 구타했다. 그리고는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옷을 벗으라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런 수모를 직접 경험한 좌봉 할아버지로부터 그때의 상황을 들어보자.

“토벌대는 여자가 남자가 할 것 없이 모두 옷을 훌렁 벗겼지. 나는 당시 마흔한 살이었는데 체면이고 뭐고 가릴 여지가 없었어. 토벌대는 옷을 벗긴 채 장작으로 때질을 했어. 토벌대는 이것도 싫증이 났던지 처녀 한명과 총각 한명을 불러내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짓을 강요했어. 인간들이 아니었지.”<sup>88)</sup>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더 이상 토벌대는 각 마을 주민들을 한사람의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빨갱이라는 없어야 할 인종으로 구분하여 굴욕과 치욕을 심어주는 행위를 한 것이다. 더불어 강제 성교를 시킨 것은 성교 대상의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치욕과 굴욕을 남기고 이를 지켜 볼 수밖에 없었던 마을 주민들에게는 토벌대의 공범으로서의 죄책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이중의 고통을 준 것이다. 주민들의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성교는 그 자체가 토벌대가 주민에게 가하는 공격의 한 전략이 되어 마을 주민 전체에게 모멸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위협이 된다.

성폭력의 다른 성격은 성폭력을 가하는 토벌대의 권력의 과시로서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다음의 사례들은 이와 같은 성격의 성폭력의 사례이다.

1949년 3월 3일 한 군인이 처녀를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총살한 사건이 벌어졌다. 죽은 강대육의 언니 강경옥은 지금도 학살자의 성씨와 얼굴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친정집에는 군인 3~4명이 임시 주둔했는데 그 중에서 최상사라는 놈이 동생을 죽였죠. 동생은 참 예뻐요. 그놈들은 처음에 처녀들을 몇 명 집합시켰다가 동생이 제일 곱다고 생각했는지 덮쳤습니다. 그러다 마음대로 안 되자 총을 쏜 것입니다. 동생은 배꼽 부근에 총을 맞아 창자가 다 나올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sup>89)</sup>

87) 제민일보 4.3 취재반 『4.3은 말한다』 3, 전예원, 1995, 92쪽

88) 같은 책 82쪽

위의 사건은 4.3민중항쟁 당시 토벌대는 권력을 두 손에 쥐고 여성의 몸을 오로지 성적 대상으로 또는 성적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몸으로 분석하여 박탈하려 한 것이었다. 이는 국가 권력의 폭력성이 여성의 몸에 성적 폭력으로 치환되어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90)</sup>

토벌대는 인륜도 강제 연행의 궁극적 목적도 상실한 채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용으로 강간에 사용했고 여성을 죽였던 것이다.

이 같은 토벌대의 패륜성과 잔인성은 강상유의 희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때를 기억하는 강소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상유언니는 나보다 서너 살 위였지만 친구처럼 어울려 다녔습니다. 얼굴이 고운 분이였지요. 9연대 정보과정 탁성록 대위가 강제로 그녀를 범한 후 함께 살았는데 어쩐 일인지 탁대위가 그녀를 죽여 버렸지요. 사실 탁 대위뿐만 아니라 서청단장이었던 김재능도 여자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김재능이 양아무개를 범했지만 그녀는 죽을 위기에 놓은 남동생을 살리기 위해 감수할 수밖에 없었지요. ‘토벌대에게 누가 당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우린 전전 금금했습니다. 당시 멋쟁이 여성들도 무서워서 가급적 나들이도 삼갔고 일부러 바보처럼 꾸미고 다닐 정도였습니다.”<sup>91)</sup>

그런데 강상유는 당시 사회주의 그룹에 참여했고 그녀의 오빠 강상호는 일제시대 유명한 사회주의자였다. 이에 탁성록은 사회주의 성향의 여성인 강상유를 강제 연행하여 성적 폭력을 자행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킨 후 자신의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주의 여성이었으므로 학살하게 된 것이다.<sup>92)</sup> 탁성록에 대한 증언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데 예쁜 여자들만 여러 번 바뀌가며 살았는데 나중에 제주를 떠나게 되자 사라봉에서 죽이고 갔다고 한다. 또한 당시 탁성록은 지독한 아편쟁이로 인명살상과 성폭행을 자행했다. 아편쟁이의 환각 속에 사회주의 그룹의 여성의 존재는 없어져야 할 대상이었다. 이 여성에 대한 생사여탈여부는 토벌 지휘자의 환각 속에서 결정되었던 것이다.

4.3민중 항쟁 전 시기동안 강간이나 여성에 대한 성희롱 등 성폭력은 비밀비재하였다. 특히 서청은 경찰보다 더욱 위세를 떨쳐 여성들의 희생에는 항상 서청이 따라다니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서청은 1946년 11월 30일 평남 청년회, 함경남북도 청년회, 황해도 청년회 등 이북 출신자 중 월남자단체가 통합하여 이승만의 후원 하에 발족되었다. 이승만은 제주도 4.3사건이 발발하자 경무부장 조병옥의 요청에

90) 미셸 푸코, 『성의 역사』 1, 나남, 1990, 118쪽

91) 제주 4.3취재반, 『4.3은 말한다』 4, 전예원, 228쪽

92) 탁성록은 아편중독자였으며 구금자 가족에게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같은 책 385쪽

따라 제주도 사태 진압요원으로 서북청년단을 급파했다. 또한 서북청년단들은 1948년 11,12월 두 달 사이에 최소한 1천 명 이상이 입도하여 경찰이나 경비대원으로 옷을 갈아입고 토벌의 중심에 섰던 것이다. 이는 이승만이 하나의 사설단체인 서청을 군인과 경찰로 전격 교체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했다.<sup>93)</sup>

여기서 서청은 국가권력을 대신하여 제주도 주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폭력을 행사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른 여타의 수사기관 및 군부대 요원과 서청을 구별하지 않고 통칭하여 서청이라고 한다. 이는 서청의 횡포가 극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청의 성적 폭력 행위를 보여주는 다음의 사례가 있다.

“성산포 주정공장 창고 부근에는 부녀자와 처녀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다. 서청은 여자들을 겁탈한 후 고구마를 쑤서대며 시시덕거리기도 했습니다.”<sup>94)</sup>

서청에게 여성의 몸은 성욕화 된 몸으로 자신들이 중요하는 빨갱이의 몸인 동시에 없어야 할 몸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죽어간 여성은 입산자의 아내인 경우가 많았다.

한 입산자의 아내가 남편 친구와 정을 통해 성관계를 맺으려는 순간 서청이 집으로 들어 닥쳤다. 서청은 그들을 가둬두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강제로 성교를 시켰다. 그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심한 채찍질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했다. 그 후 서청은 그 여성의 질에다 수류탄을 집어넣고 뛰어가라고 말하자 여성의 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sup>95)</sup> 토벌대가 공공장소에서 성교를 시키는 것은 당시 여성이 정절을 지키지 않고 간음한 것이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이를 지켜봐야 하는 마을주민들로 하여금 성교를 당하는 여성과 함께 도덕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주민 전체에 성폭력을 자행한 것이다. 더불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서 정절관념에 따라 간음한 여성을 살해한 것이 정당화된 것이다.

한편 중산간 마을에서 체포되어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창고에 가둬놓는 일이 많았는데 당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적 탄압을 지켜본 남성의 얘기를 들어본다.

“남녀를 불러내어 구타하면서 성교를 강요했고 여성의 경우 국부를 불로 지지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그 썩는 냄새로 잠을 못 이룰 지경이었습니다. 난 그들이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다.”<sup>96)</sup>

93) 주한미군 사령부 정보 보고서, 1948년 12월 6일

94)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5, 전예원, 1998, 69쪽

95) 한림화, 『Jeju Women as Civic Actors in the Jeju April 3rd Uprising: from humanism to Civic Engagement』, 『Conference to havard University's』, 2003. 4월 25일

강요된 성교는 성교대상자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느끼게 하고 이를 지켜 보는 토벌대는 강제 성교당하는 남성주민에게는 승리감을 맛보고 최종에는 강제성교당하는 여성을 죽임으로써 생사여탈권을 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한다.

표선면 토산리에서는 주민들을 다 모이게 한 후 달빛에 비추어 20세 미만의 젊고 예쁜 여성만 골라 표선국민학교에 가뒀다가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건의 목격자는 성적(性的)인 문제로밖에 볼 수 없다고 증언한다.

당시 갇힌 여성중 혼자 살아온 여성은 아직도 당시의 상황에 대해 물어보지만 수치심 때문인지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성폭력을 당하고도 살아남은 여성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입을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여성의 역사를 살아남은 남성들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 여성이 성적 고통을 당한 당사자라면 남성은 다른 사람 즉 여성의 고통을 구경하는 객관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여성에게는 자신의 입을 통해 당시의 성폭력의 경험사가 튀어나오기까지 그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고 그것을 언어로 형상화하는 것 자체가 당시의 고통을 재현하는 공포가 될 것이다.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은 성적 표현을 이용한 공격의 성격을 갖는다. 강간당한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줌과 동시에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이다. 실제 희생자의 신체, 특히 성기가 심하게 손상되고 그것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일도 적지 않았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경찰에게 넘겨진 부녀자 4명은 희생되었습니다. 토벌대는 미치광이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총살당한 게 아닙니다. 옷이 모두 벗겨진 채 국부를 난도질당하는 참혹한 모습으로 숨졌습니다.”<sup>96)</sup>

그렇다면 왜 성적 폭력은 이와 같은 잔인성과 다의성을 동반하는가? 그것은 여성의 몸은 아이를 낳고 기르며 국민과 민족의 재생산을 보증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사회문화를 재생산하는 상징으로서 이해되고 표상되었기 때문이다.<sup>97)</sup>

4.3시기 동안 벌어진 성적 폭력의 성격은 공동체의 사회문화의 재생산을 의미하는 여성의 몸을 강제로 취하고 성교 시키거나 죽이는 등 공동체의 파괴의 의미를 내포하며 여성의 몸을 경찰 및 서정의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함으로써 그 사회 구성원

96) 오금숙, 「4.3을 통해 본 여성인권 피해 사례」,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제주 4.3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1998, 162쪽

97)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4, 전예원, 1997, 440쪽

98) 하세가와 히로코, 「의례로서의 성 폭력」, 『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서』, 삼인, 1999, 349쪽

모두에게 모델의 의례가 되고 죽음의 공포를 자아낸다. 성폭력을 통해 토벌대는 제주민중에게 대한 생사 여탈의 권력을 과시했던 것이다.

### 3. 강제결혼의 실태

강제결혼의 사례는 특히 이승만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인 11월부터 이듬해 1949년 3월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는 초토화 작전이 진행되는 시기로 강제결혼 외에도 강간 등의 성폭행도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제주도 사태는 단순한 폭동의 문제를 넘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강경하게 진압하게 된 시기였다. 해안선에서 5km 이상의 중산간 지대를 적성 지역으로 간주하여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무조건 총살한다는 포고문이 선포된 이후이기 때문이다.<sup>99)</sup> 이에 군경 토벌대는 중산간 마을 130개를 소개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빨갱이 혐의를 씌워 학살한 것이다. 이때 학살에서 벗어나고자 하거나 서청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비위를 맞추는 방법으로서 자신의 딸을 내주는 삶의 전략을 선택했다. 만약 서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죽임을 당했다. 실제로 무릉지서에 머물던 한 서청이 김정생의 딸을 탐내자 김정생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딸을 지켜냈다. 그러자 서청은 그를 끌고가 총살했다.<sup>100)</sup>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토벌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서청은 제주에 안착하려는 목적 하에 재력가의 딸을 아내로 삼으려 했다는 점이다. 서청의 출신지는 북쪽이기 때문에 월남 당시 경제적 기반이 취약했기 때문에 제주도 출신 여성 중 재력이 있는 명문가의 여성을 강제로 아내로 맞이한 것이다.

물론 서청 단원 중에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겨 맘에 드는 여성을 본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생사여탈권을 지니고 강제 결혼 한 사례도 있다. 이들 중에는 육지에 본처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어쩔 수 없이 서청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산 제주여성은 4.3이후 서청은 떠나도 따라가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제주사회에서 홀로 살았다고 한다.<sup>101)</sup>

성산읍 동남초등학교 교사였던 한 증언자는 자신의 목숨을 대신 구해준 한 여인의 사연을 이렇게 증언했다.

99) 10월 17일 9연대장 송요찬 소령은 포고문을 발표함으로써 학살의 대대적 선언을 한 셈이다.

100)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5, 전예원, 1998, 359쪽

101) 강도화(81세, 안덕 서광 1리, 2003년 7월 31일 채록)증언

“옛장수나 하던 서정들이 무장을 하게 되면서 희생자는 속출했습니다. 난 교사로서 주정 공장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남녀를 불러내어 성교를 강요했고 여자의 국부를 불로 지지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썩는 냄새로 잠을 못 이룰 지경이었습니다. 내가 살아나게 된 것은 정 아무개 선생 때문이었습니다. 정 선생은 나의 약혼녀였는데 그 선생이 차 아무개란 서정 간부와 결혼하는 대신 나를 살려준 것입니다. 날 살려준다는 조건으로 자신을 접탈하려던 서정단원과 결혼한 것이죠.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소문만 듣고 있는데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sup>102)</sup>

위의 사례는 약혼자를 위해 자신을 몸을 서정에게 줌으로써 희생한 한 여인의 뒤바뀐 인생을 보여준다.

다음의 사례는 위의 경우처럼 여성의 자발적 희생이 아닌 아버지와 서정단원간의 여성을 빌미로 맺어진 정략결혼의 사례이다.

“강아무개 씨 등 내 놓아라 하는 지방의 유지들이 자기들의 딸을 서북청년들에게 내줘 정략결혼을 통해 가족 모두의 생명을 보장받고 딸을 희생시키기도 했다.”<sup>103)</sup>

또한 앞서 증언한 홍경토씨의 일가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정략결혼이 행해졌다고 한다. 홍씨 가족은 형의 조카딸을(당시 18세) 서북 청년인 어느 파출소장에게 정략결혼시켰다고 한다.<sup>104)</sup>

이 두 사례와 같이 재력가의 집안과 서정단원 사이에 이루어진 정략결혼은 여성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매매보다 앞서는 범죄행위이다. 왜냐하면 한 여성의 인생을 마음대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강제 결혼의 사례를 더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1948년 11월 2일 서정 출신 박 아무개에게 끌려갔다. 그는 악명이 높았고 지금도 제주에서 잘 살고 있다. 그의 부인은 교사 출신 고 아무개인데 그가 지서 주임 시절 강제 결혼하였다. 그녀는 하는 수 없이 애를 낳고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그들이 부부 동반한 것을 본적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102) 오금숙,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사례」,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제주 4.3 제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1998, 164쪽

103) 오성찬 채록, 『한라의 통곡 소리』, 1988, 92쪽 (강승훈, 송민훈의 증언)

104) 같은 책 94쪽

“귀덕리의 한 여성은 아버지를 죽인 서청의 눈에 들어 강제로 동거하여 살았으나 측은하게 생각하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마을을 떠나 버리고 말았다.”<sup>105)</sup>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양아무개가 있다. 그도 결국 죽을 건데 서청단장 김재능이 그의 누나를 빼앗는 조건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게 결정적으로 그의 목숨을 살린 요인이다. 그보다 못한 사람도 다 죽었으니까.”

“나중에 영화감독이 된 서청출신자 김 아무개는 성산포에서 맘에 드는 여자를 빼앗아 살았다.”

다음의 사례는 본인이 직접 증언한 일이다.

“해방 직후 음악동지회 시절부터 노래를 잘 부르기로 성내에 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차출되었다. 이때 노래를 부르면서 토벌대 핵심부에 있던 사람들의 눈에 띄었다. 그런데 서청 단장 김재능이란 놈은 나이든 여자든 젊은 여자든 어떻게 하면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을까 궁리하던 놈이었지. 김재능에게 얼렁뚱땅 다음에 보자며 도망 나온 적도 있다. 또 2연대장이 날 노렸다. 한번은 자신의 부하에게 날 몰래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 부하들은 우리 집 담을 넘다가 실수로 우물에 빠지기도 했다.”<sup>106)</sup>

이 여성은 김재능을 피해 당시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과 결혼하여 김재능과의 강제결혼을 피할 수 있었다.

“강씨라고 관무식업주, 이 사람이 본부인이 있는데 지금 그 각시가 얼굴이 이뽀주게. 자기 아내로 삼아 불러니 처갓집 부모네가 전혀 듣질 않아. 부모네가 반대해서 말이 안들어가니까 부모네 다 죽여 두고 그래도 본인이 말을 안 들으니 강제 결혼해가지고 봉개 있으면 밤에 엮고 다니면서 그럭저럭 하다보니 애가 생겨가니까 살게 된 겁주.”<sup>107)</sup>

이상과 같이 4.3민중 항쟁의 와중에서 여성은 성적 대상이 되어 서청을 비롯한 토벌대의 노리개가 되기도 하고 강제 결혼을 당하기도 했다.

다음은 한 피해 여성과 함께 교원양성소를 다녔던 할아버지의 증언이다.

“한 군인 장교가 교사를 하던 한 여성을 탐내서 그녀를 위협하며 살다가 그녀의

105) 제주 4.3연구소 엮음, 「현장 조사-통일되민 다 말허쿠다」, 『제주 항쟁』 창간호, 1991, 실천문학사 271쪽

106) 오금숙, 「4.3을 통해 본 여성인권 피해 사례」,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제주 4.3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1998, 165쪽

107) 제주 4.3연구소, 『이제사 말헬수다』 2, 한울, 1989, 223쪽

동생을 보고 반해서 이번에는 같이 살던 여성을 버리고 그 동생과 결혼하려 했다.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자 군인들은 총으로 위협했다. 그 여성의 집은 양철집(부잣집의 상징)이었는데 총구멍으로 범벅이 됐다. 결국 그 군인장교와 결혼한 동생은 육지에 가서 살다가 나중에는 이혼 당했다고 한다.”<sup>108)</sup>

위의 사례에서처럼 서청단원에게 강제로 겁탈당한 여성은 부모를 죽인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겨 사랑도 없는 결혼생활을 이어가야만 했다. 서청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여성의 가족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행사했으며 위의 사례처럼 서청에게 딸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여자덜 잡아가 옷 벗겨 겁탈, 어느 누구네 집 여자 잡혀갔다 하면 그런가 해십주, 말을 안들으면 굉장히 두들겨 패서 어떤 사람들은 견질 못할 정도로, 견질 못하는 것 뿐 아니라 그냥 시들시들하게 돼버린 전례도 있음주.”<sup>109)</sup>

또한 서청은 맘에 드는 여자를 빼기 위해서 홀어머니든, 남편이 있던 상관없이 상대방을 죽여 놓고 종국에는 빼고 살았다고 한다.<sup>110)</sup>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서청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맘에 드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겨 마음대로 갈아 치웠으며 여성이 재력가의 여식이면 그 여성을 맘대로 취해 경제적인 이득도 얻었다. 여성은 더 이상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가족의 생명과 교환되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서청의 성적 욕망을 채워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4.3민중항쟁의 와중에서 벌어진 서청의 만행은 한 여성의 인생을 바꾸어놓기도 하고 여성을 서청단원인 남성의 성적 욕망이 각인되는 성화된 몸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 4. 학살의 실태

학살을 지칭하는 영어의 표현은 제노사이드(genocide), 마사크리(massacre), 홀로코스트(holocaust) 등이 있다. genocide는 인종적, 민족적 갈등으로 발생한 대량 학살을 주로 지칭하는 개념이라면 holocaust는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멸, 대학살을 주로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massacre는 단순한 대량의 학살을 지칭한

108) 오금숙, 같은 책 166쪽

109) 같은 책 222쪽

110) 제주 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2, 한울, 1989, 85쪽

다. 처음에 제주도민에 대한 학살은 정치적 항쟁에 대한 억압을 이유로 진행된 폴리티사이드(politicide)의 성격으로 출발했으나 점차적으로 한민족 또는 종족 집단의 박멸 및 절멸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genocide적 성격으로 학살의 의미가 광범위해졌다. 제주 4.3항쟁에서의 여성에 대한 학살의 실태는 위의 네 가지 용어의 의미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차원의 학살이었다.

한편 제주 4.3당시의 학살의 형태에 대해 세 가지 차원에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집단학살을 작전으로서의 학살의 유형으로 파악하고 보복에 의한 학살로 군, 경에 의한 대살로서의 학살과 무장대에 의한 학살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처형으로서의 학살로 수형자에 대한 학살과 예비검속에 의한 학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초토화 작전에 의한 학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한미군 정보보고서에 의하면 이 작전을 빨갱이 사냥(red hunt)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토벌에 대해 '민간인 대량 살육작전'으로 분석하고 있다.

### 1) 작전으로서의 학살 : 초토화 작전에 의한 학살

작전으로서의 학살은 군, 경에 의해 적과 내통한다고 간주되는 지역이나 적이 활동하는 지역 내의 주민들에 대해 이루어지는 집단 학살을 말한다. 제주도에서는 중산간 마을에 대한 대대적 집단학살이 이에 포함된다.

중산간 마을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은 소위 '초토화 작전'이 벌어진 1948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시기동안 자행되었다. 제주에서의 초토화 작전은 불법적인 계엄령아래 처음에는 중산간 지역을 초토화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피해는 실제적으로 해안마을까지 확대되어 학살의 만행은 계속되었다.

중산간 마을의 경우에도 일부 마을에서는 소개령조차 전달받지 못했고 남녀노소의 구분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토벌대는 중산간 마을 주민들을 집단 학살하고서도 빨갱이, 폭도로 몰아 전과 올리기에 이용했다. 주민들은 빨갱이여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자신도 모르게 토벌대에 의해 폭도가 되는 것이다.

무자비한 학살에 대해 미군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 눈길을 끈다.

'11월 13일 경비대의 작전으로 폭도들이 행원리에서 115명, 좌표 937-1133지역에서 37명, 오동리 근처에서 4명 사살됐다'<sup>111)</sup>

그런데 같은 날 11월 13일 애월면 소길리 원동마을에서는 무장대가 출현했다는 접

111) 주한미육군 사령부 정보일지, 1948년 11월 15일~16일

보에 의해 군인들이 들이 닥쳐서 폭도가 있는 곳을 대라고 다그쳤다. 그들은 주민들을 굴비 엮듯 사람과 사람을 밧줄로 묶고 하루 종일 추궁했다. 총소리가 나고 군인들은 시신위에 식량과 이불을 덮고 불을 지른 후 가버렸다. 이때 죽은 사람들은 총 34명으로 농사를 짓던 농부와 힘없는 부녀자와 어린 아이였다. 바로 좌표 937-1133지점이 원동마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무고한 주민을 학살한 후 학살당한 주민은 폭도로 처리되어 군인들의 전과를 올리려는 권력욕을 채워주고 있었다.

애월읍 하가리에서도 원동마을주민들이 학살당한 같은 날에 무차별적인 학살이 자행되었다. 그런데 하가리는 중산간 마을로 보기에 애매하다. 왜냐하면 해변마을로 나있는 일주도로변에 가까운 마을이었기 때문이다. 소개령도 물론 내려지지 않은 마을이었는데 군인들은 다짜고짜 마을 사람들을 잡아다가 밧으로 끌고 가 죽여 버렸다. 이때 죽은 사람 중에 18살 된 고순화는 만삭의 임신부였다.<sup>112)</sup>군인들에게는 임신부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생명의 존엄한 자가 아니라 공산주의자 재생산의 상징이며 존속성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재생산 기능의 파괴를 위해 학살을 당한 것이다.

민간인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에 대해 안윤매 여인을 잃은 양한구씨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아내는 초상집 심부름하러 따라간 것이지요. 다음날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 밧에 베어 놓은 조를 묶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토벌대의 눈에 췌 것입니다.”<sup>113)</sup>

이렇게 밧에서 농사일을 하던 아녀자도 무차별 학살한 것이다. 한편 토벌대 중에서도 생사여탈권은 서북청년단원들이 가지고 있었다. 당시 살아남은 제주도민중에는 서청과 다른 수사기관이나 군 부대요원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서청이라 부를 정도로 그들의 만행과 권력은 무소불위였다.

그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현직 검사를 즉결 처형시킨 사례가 있다.<sup>114)</sup>

한편 1948년 11월부터 벌어진 초토화 작전에서 빈번히 발생한 것은 학살뿐만 아니라 방화도 비밀비개했다. 11월 13일 조천면 교래리를 포위한 토벌대는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이를 피해 나오는 주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했다. 이날 30여 명이 집단 학살당했는데 마을의 대부분 남자들은 산으로 숨었기 때문에 희생자는 노인과 여자 그리고 15세미만의 어린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때의 상황을 조천면 양북

112)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주 4.3사건 보고서』, 2003, 407쪽

113)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4, 전예원, 1997, 104쪽

114)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4, 1997, 194~195쪽

천 할머니의 증언을 통해 살펴보자.

“그날 새벽 젊은이들은 황급히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린 아들과 딸 때문에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설마 아녀자와 어린이까지 죽이겠느냐’는 생각에서였지요. 그런데 집에 불을 지르더니 군인들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습다. 그 순간 총알이 내 옆구리를 뚫었습니다. 세 살 난 딸을 업은 채로 쓰러지자 아홉 살 난 아들이 어머니 하고 달려들었죠. 그러자 군인들은 아들을 향해 또 한발을 쏘았습니다. ‘이 새끼는 아직 안 죽었네!’ 하며 아들을 쏘던 군인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울지 않던 딸을 살렸는데 울지 않았기 때문에 딸까지 총을 맞았으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내려보니 담요가 너털너털하고 딸의 왼쪽 무릎이 땡 뚫려 있었습니다. 내 옆구리를 관통한 총알이 담요를 뚫고 딸의 왼쪽 다리까지 부숴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생일날 불구자가 된 딸이 이제 선한 살입니다.”<sup>115)</sup>

할머니는 그때의 죽은 아들과 아직도 불구로 살아가는 딸 얘기를 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지금도 그때 맞은 총으로 인해 온 몸이 편할 날이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당시의 학살이 얼마나 무모하게 자행되었는지 가늠할 수 있었다.

이 시기 토벌대는 전과 울리기에 급급하여 여자, 젖먹이 아기, 어린이도 토벌의 대상으로 삼아 잔인한 학살극을 연출했다. 즉, 토벌작전이 일어났을 때 열세명의 목을 잘라서 시내를 두루 다니며 구경시키는 사례도 있었다.<sup>116)</sup>

중산간 마을에 대한 대대적 집단 학살에는 어떠한 이유도 없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희생자의 대부분은 여성, 노인, 어린이 등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었다. 중산간 지역을 적성 지역으로 여겼기 때문에 마을 주민 중 남성들은 대부분 입산하여 동굴에 숨거나 무장대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단지 중산간 마을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살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 역시 삶의 터전마저 잃어버리고 죽음을 피해 해안마을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한편 중산간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산간 마을 주민모두를 폭도로 모는 공포분위기속에 입산을 생존방법으로 선택했다. 그 중 한 여성의 생애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 여성은 단순 피난민에 불과했으나 입산했다는 혐의로 수용소에 끌려가 수감되었다가 석방될 때 동명이인 대신 호명되어 나가는 통에 전구교도소까지 가 1년을 살았다. 수감 중에 5살 된 막내는 폐렴으로 죽어버리고 큰 아들도 정뜨르 비행장에서 산 채로 매장 당했으며 둘째 아들은 그녀가 형무소에 나오던 해

115) 양복천(80. 여. 조천읍 大屹 2리, 2003년 7월 30일 채록)증언.

116) 임두홍, 「대나오름의 기억」, 『제주민중항쟁』 1, 소나무, 1988, 379쪽

에 수영하다가 익사했다. 그녀는 수감과정과 취조과정에서 너무 많이 얻어맞아 팔을 못 쓰는 후유증의 고통을 안고 혼자 살아가고 있다.<sup>117)</sup>

초토화 작전의 일환으로 무모하게 벌어진 학살은 국가 건설 과정에서 적에 대해 잔혹하게 대처하고 희생양들을 완전히 재기불능상태로 만들어 국가의 위엄을 과시하고자 했던 이승만 정권의 파시즘적 국가관을 보여준다. 즉, 끔찍한 학살 장면을 목격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국가권력에 대한 공포심과 무조건적인 복종심을 심어주는 정치적 효과를 위해 행해졌기 때문이다.

## 2) 보복에 의한 학살

### ① 군경에 의한 학살 - 빨갱이 사냥

제주도 4.3피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희생자의 82.93%가 토벌대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수치의 학살이 자행된 것일까? 이것은 토벌대가 제주도 마을 주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미군정 경무부장 조병옥은 대한민국을 위해 제주도 전역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30만 도민을 소멸해야 한다고 호언한 바 있다. 또한 서북청년회 제주도 위원장인 안철은 제주도는 '한국의 작은 모스크바'이며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방첩대에 입중해 보일 작정이라고 공공연히 말했다.<sup>118)</sup>

이러한 생각을 지닌 서북청년회가 토벌에 대부분 합류했기 때문에 주민의 희생이 컸던 것이다. 당시 토벌대 진형에는 미군, 경비대, 경찰, 서북청년단, 민보단, 학생연맹 등이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은 증언에서 토벌대라 부르지 않고 모든 토벌과 만행의 당사자로 서북청년단을 지목할 만큼 그들의 악행을 컸던 것이다.<sup>119)</sup>

제주도는 빨갱이 섬이고 모든 여성은 빨갱이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빨갱이를 재생산하는 몸이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학살은 잔인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특히 토벌대는 도피자 가족에 대한 학살을 끔찍하게 자행했다.

“서방내놓으라고 극성을 부리면 상 놓고 쫓붙 쫓아 제사지내는 시늉을 해도 나중에 다 알아가지고 그 예편까지도 다 죽여부렸수다.”<sup>120)</sup>

한편 제주시 외도1동 속칭 절 뒤에서 죽창으로써 무자비하게 일가족을 몰살한 사

117) 제주 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2, 한울, 1989, 200쪽

118) 주한미육군 사령부 정보일지 1947년 11월 24일~25일(No. 693)

119) 원래 명칭은 서북청년회이지만 제주도민은 대부분은 서북청년단으로 명명하고 있었다.

120) 제주 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2, 한울, 1989, 197쪽

례가 벌어졌다. 이유는 장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부모를 비롯해 장남 이완영의 처 고의순, 동생 기영, 아들 부부 영희, 고촌자, 그밖의 형제들 봉희, 옥자, 옥희, 이완영의 아들 생후 10일된 영아까지 모두 4대에 걸친 일가족이 죽창으로 몰살당한 것이다.<sup>121)</sup>

이러한 대살(代殺)은 검거 대상자를 잡지 못했을 때 그 가까운 가족 및 친인척을 잡아 들여 죽인다는 것으로 4.3당시 부지기수로 발생했다.

용강마을 강씨부인은 신혼이었는데 남편이 토벌의 무차별적인 초토화작전을 피해 입산한 상태였다. 마을에서 외진 곳에 외치한 집에 토벌대는 소리 없이 다가가 그 집을 포위한 다음 방안에 젊은 부인이 혼자 앉아 갓모자를 짜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일제히 사격을 가해 살점과 피가 튀어 눈으로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한다.<sup>122)</sup>

또한 한 여성은 대살의 공포로 인해 친정집에 숨어 지내다가 심신이 쇠약해져 만 4년 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음의 사례는 당시의 잔혹한 대살의 광경을 증언하고 있다.

“12월 10일 개수동에 대동청년단원과 경찰이 들이닥쳤어. 주민 모두를 비행기(飛鶴)동산에 모이게 한 후 도피자 가족이라 하여 총살하고 임신부를 발가벗겨 땡나무에 매달아 놓고 대검과 철창으로 찢러 총살하는 등 잔혹함을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때 사람 씨를 말리려고 그 짓을 한거야. 하도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려 하자 ‘잘 구경하라’며 소리쳤지. 이때 총살당한 사람 중 어머니가 자식을 감싸 안고 쓰러지는 덕분에 살아남은 사람이 내 조카 안인행이야.”<sup>123)</sup>

당시 개수동에는 장전리와 광령리에서 개수동으로 소개 내려온 사람들이 함께 처형당한 것이다. 그런데 도피자 가족이라 죽임을 당한 임신한 여성에 대한 학살은 주민들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와 더불어 무력감을 조성하려는 토벌대들의 전술의 의례로서 관왕 학살한 셈이다.

또한 총으로 사살할 것을 대검과 철창으로 찢러 죽인 것도 더욱 잔인함을 보여줌으로써 인종의 말살의 의도를 보였던 것이다.

직접 주민들을 학살에 참여하여 죄책감을 조장하고 주민들이 스스로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4.3발발 이듬해 봄으로 기억되는데 금덕리에 소개온 한 처녀가 하귀 지서에 끌려

121) 제주신보 1960년 6월 24일

122) 한림화, 「Jeju Women as Civic Actors in the Jeju April 3rd Uprising: from humanism to Civic Engagement」, 『Conference to havard University's』, 2003. 4월 25일

123) 안태영(77세 애월읍 장전리, 2003년 7월 29일 채록)증언.

가 매일 전기고문을 받았어요. 사라진 오라버니를 찾아내라는 게 벌미였어요. 그녀는 고문을 견디다 못해 도망쳐 바닷가에 숨었지만 며칠 후 경찰에 붙잡혔어요. 우리 앞에 끌려왔을 때 그녀는 이미 초주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녀를 홀짝 벗긴 후 여자니까 대한청년단 여자대원들이 나서서 철창으로 찌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찌르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라는 협박에 한 여자가 먼저 나서서 찔렸어요.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내 차례가 되기 전에 그 처녀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하려다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몸을 췌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sup>124)</sup>

위의 사례는 관광학살을 넘어 동족이 동족을 죽이게 만드는 비인간화의 과정을 조장하고 있다. 당시 직접 찌른 여성들은 대부분 며칠을 두고 몹시 앓았다고 한다. 즉 자신이 같은 여성을 죽였다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토벌대가 의도한 바는 무엇인가? 여성의 몸을 취함으로써 자신들의 성욕을 채우고 힘을 과시하고 싶었으나 말을 듣지 않자 나체화된 여성의 몸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시함으로써 수치심을 조장하고 마을 여자들로 하여금 죽이게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마을 공동체의 파괴를 유도한 것이다.

한편 관광학살에 대한 증언은 다음에서도 발견된다. 토산리 창고 부근에서 총살이 있었는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경하라고 했다. 그리고 총살할 때 박수를 치라고 했다. 총살 때 아기가 살아서 위로 올라오니까 아기를 향해서도 총을 쏘았다고 한다.<sup>125)</sup>

사람이 죽어 가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박수까지 치라는 것은 이들을 더 이상 사람으로 보지 앓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죽임을 당하는 이들이 토벌대에게는 없어져야 할 인종이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인식을 구경하는 주민들에게도 강제적으로 심어주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박수치는 사람들에게 위협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초토화 작전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을 무렵 토벌대는 토벌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학살로 인해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일을 거리낌 없이 자행했으며 학살자체 마저 즐기는 야만적인 모습으로 전이되어 갔다.

"용강서 봤는데 감나무에 사람을 달아매어 죽여놓고 귀도 끊어 버리고 눈도 파붙고 아래 풀 비어다가 막 그을리니까 새까맣게 막 타고."<sup>126)</sup>

12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2003, 417~418쪽

125) 같은 글, 422쪽

126) 제주 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2, 한울, 1989, 222쪽

토벌대는 사람을 죽여 놓고 빨갱이 내지 빨갱이 가족으로 취급하여 죽은 후에도 시체에까지 보복하는 잔인성과 야만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보는 이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함으로써 대항의식을 소멸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학살의 정도가 극에 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빨갱이에 대한 집단적인 증오와 광기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북리가 소개된 다음날일 겁니다. 지서주임이 월정리 주둔군인 중대장을 대동하고 나타나 민보단을 집합시키더군요. 지서 주임은 현재 유치장에 폭도 4명이 있다. ‘너희들 중에 창으로 찌를 용의가 있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자 주임은 무안한 표정으로 ‘마침 토벌나간 민보단 특공대가 있었으면 쉽게 처리했을 텐데’ 라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 아무개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박 아무개는 심하게 구타당한 후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폭도라고 나온 사람들을 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동북리에서 소개 온 사람들인데 60대 후반에서 70대에 이르는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도피자 가족으로 몰린 것 같습니다.”<sup>127)</sup>

토벌대는 자신들이 직접 학살하지 않고 같은 마을 사람들로 구성된 민보단으로 하여금 보기도 폭도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무고한 할머니들을 찌르게 했던 것이다. 민보단이 겪는 심적 죄책감을 보면서 토벌대는 학살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들을 죽일 사람을 자원 받고 자원하지 않으면 대신 구타와 함께 유치장에 갇히는 모습이 마치 게임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무고한 사람을 죽인 민보단들은 지속적인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한편 여성에 대한 성적 학살과 보복적 학살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산에서 심부름 하던 처녀들은 희생이 컸습니다. 아무개 처녀는 순경이 자신과 결혼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으나 끝내 거절하여 죽었습니다. 또 아무개 처녀는 다라콧 목장 부근에서 토벌대에게 잡혀 산 채로 유방이 도려 졌어요. 그녀는 고통을 참지 못해 땅바닥을 긁어대 손톱이 다 빠졌고 그녀가 죽은 부근에는 잔디가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sup>128)</sup>

성산포에서 한 서청이 자신의 성욕을 채우지 못한 보복으로 할머니를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숨진 박태수 할머니에겐 20살 가량의 미모의 손녀가 있었는데

127)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5, 전예원, 1998, 35~36쪽

128) 오금숙,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사례」,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제주 4.3 제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1998, 239쪽

손녀를 탐내는 서정을 만류하다가 죽게 된 것이다.<sup>129)</sup>

이와 같은 사례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겨 취하려다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이를 학살을 통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위협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었다.

가시리에서도 여성에게 생명에 대한 위협을 가해 성적 희롱을 가한 후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젊고 예쁜 여자를 잡아와 옷을 벗고 저기까지 뛰어갔다 오면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기까지 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키는 대로 했으나 경찰은 총을 쏘았습니다. 그녀 위에 쓰러진 아기가 울어대자 한 군인은 아기 혼자 내버려 봐야 살 수 없다고 말하며 아기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자신도 끄적했는지 고개를 돌린 채 총을 쏘더군요.”<sup>130)</sup>

본래 여성을 살려줄 의도가 전혀 없었던 토벌대는 여성의 생명을 담보로 성희롱을 즐기다가 자신들의 성적 욕망이 충족되자 가차 없이 총을 쏜 것이며 자신의 죄과에 대한 후한을 염려해서인지 아기마저 죽여 버리는 비(非) 인간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토벌대에게 여성은 빨갱이 또는 빨갱이의 재생산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반드시 없애야 할 인종이었다. 이러한 인종 청소적 발상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민보단과 부인회원을 모이게 한 후 한 여인을 끌고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난산리 출신으로 신중리에 시집간 사람인데 남편이 산에 오르자 친척이 있는 우리 마을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만삭인 상태로 와서 아기를 낳았는데 경찰은 그 여자를 발가벗긴 후 민보단원과 부인들로 하여금 창으로 찌르라고 강요하다가 총으로 쏘았습니다. 생후 한달이 안 된 아기가 죽은 엄마 옆에서 버둥거리자 경찰은 아기 얼굴에 대고 또 한발의 총을 쏘았습니다.”<sup>131)</sup>

“어떤 여자가 혼자 애기를 안고 있었는데 초소의 총구멍으로 총을 내밀어 세 번 쏘니까 여자의 배에서 배설이 나와. 그 여자가 애기를 내붙고 쓰러지며 물 달라고 하는데 순경새끼덜이 물을 안 갖다 줘. 그걸 보면서 어린 맘이라도 물을 갖다 주고 싶었지만 무서우니까 어쩔허여.”<sup>132)</sup>

129)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5, 전예원, 1998, 64쪽

130) 같은 책, 101쪽

131) 같은 글, 244~245쪽

또한 입산자의 아내인 한 여성은 임신한 상태에서 고모가 있는 표선면 성읍리에 몸을 피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이 되던 때 그녀의 신분이 드러나 토벌대가 찾아와 아기와 엄마를 죽창으로 찔러 죽였다.<sup>132)</sup>

토벌대에게 폭도가족은 이미 인간이 아니라 빨갱이의 가족이며 아기는 빨갱이의 재생산을 의미한다. 여성의 옷을 벗겨 수치심과 굴욕감을 심어준 다음 빨갱이의 소멸을 위해 여성은 없어야 한다. 또한 아기는 빨갱이의 씨앗이므로 사라져야 할 인종인 것이다. 여기서 여성의 재생산 기능의 파괴와 인종 청소적 발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조천면 북촌리에서는 1948년 12월 16일 산으로 못가고 집 부근에 토굴을 파서 살다가 자수하면 양민으로 인정해준다고 하여 함덕 해수욕장으로 내려와 자수하였다가 23명이 학살당했다.

또한 대대적인 인명피해를 낳은 북촌학살은 세화리 주둔 군인 2명이 함덕리로 오다가 무장대의 기습으로 죽은 직후 발생했다. 얼마 후 제 2연대 3대대 7중대의 2개 소대가 북촌리로 들어와 북촌국민학교 교정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그러다 총격을 중지시키고 함덕으로 오라고 한 뒤 다시 학살시켰다. 이틀 동안 북촌 300여 호에서 약 400명이 집단 학살당했다.<sup>133)</sup>

이때 살아남은 사람은 함덕으로 가지 않고 입산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북촌학살은 무장대의 기습 공격으로 피해를 본 군대가 적의 출현지역으로 생각한 북촌리를 적의 마을로 확정 짓고 북촌리 주민 대부분을 죽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남원면 의귀리에서도 발생했다. 무장대가 1949년 1월 12일 2연대를 습격하자 토벌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의귀국교에 수감되어 있던 마을 주민 1백여 명을 집단 학살했다.

군, 경은 제주도민들을 빨갱이로 간주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무장대출현마을에서부터 전혀 관계가 없는 해안마을에 이르기까지 집단 학살, 관광학살, 대살(代殺), 가족몰살 등을 자행했다. 특히 여성에 대한 학살에서는 잔인성과 폭력성이 극대화되어 광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② 무장대에 의한 학살

제주도 의회 4.3특별위원회가 발간한 제주도 4.3피해조사 보고서(수정보완판, 1997)에 의하면 무장대에 의한 피해신고는 전체의 11.26%로 토벌대에 의한 희생이 82.93%인데 반하여 적은 수치이지만 토벌전에 대한 보복으로 주민들을 향해 벌어진

132) 제주 4.3연구소, 『미제사 말함수다』 2, 한울, 1989, 160쪽

133) 제주 4.3연구소, 『4.3은 말한다』 5, 전예원, 1998, 85쪽

134) 김창후,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역사비평』 1993 봄, 159쪽

학살이 정당화될 수 없다. 무장대에 의한 학살은 군의 초토화 작전이 펼쳐지고 계엄령이 선포된 후 중산간 마을에서의 무장대에 대한 감시, 신고체제가 강화 되었을 때 발생했다. 특별이 무장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열세에 직면하자 주민들에 대한 학살로 이어진 것이다.

구좌면 세화리에 지서가 있었고 경찰은 청년들과 더불어 특별전을 벌였는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1948년 12월 31일 무장대가 세화리를 공격하여 48명을 숨지게 했다. 이는 무장대에 의해 벌어진 학살 중 최대 규모이고 마을 주민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은 이해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이 학살당하는 사이에 세화리 지서에는 35명 정도의 경찰이 있었으나 무장대가 사라질 때까지 수수방관하였다. 오히려 이튿날 특별대는 감금되었던 종달리 주민 16명을 주민들 앞에서 집단학살하였다.

세화리 주민을 학살한 무장대는 다음날 종달리로 가서 민보단원 7명을 살해했다. 이에 특별대는 노인과 여성 등 9명을 총 개머리 관으로 찍거나 돌로 쳐 죽이는 잔인한 학살을 자행함으로써 무장대에 대해 보복했다.

무장대는 1949년 2월 8일 식량을 탈취하기 위해 성읍리의 보초 2명을 죽였다.<sup>135)</sup> 남원면 태흥리에서도 특별대와 무장대간에 보복전이 있었다. 1948년 11월 17일 특별대가 일본으로 도피한 사람의집에 불을 지르고 4명을 살해하고 20일부터 태흥1구에서 주민 30여명을 잡아 남원지서에 수감하였다. 이에 대해 무장대는 태흥 2구를 습격해 보초서던 5명을 살해했다.

11월 18일에는 남원면 위미리를 습격하여 주민 30여명을 집단 학살했다. 부녀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학살이었다. 이때도 경찰은 지서 안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무장대에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주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무장대는 12월 31일에도 위미리를 침입하여 보초 서던 주민 3~4명을 죽이고 식량을 탈취하였다.<sup>136)</sup> 주민들에게 있어서 보초서는 일은 자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경찰의 강요에 의해 선택한 생존전략이었을 뿐이다. 보초서는 일은 마을여성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편 12월 1일에는 무장대가 중문면 강정2구 염돈 마을에 들어가 노인과 부녀자, 소년을 포함한 9명을 학살하였다. 12월 11일에는 무장대가 강정 2구의 내팓마을을 습격하여 8명을 학살했다.<sup>137)</sup>

무장대의 민보단 및 주민에 대한 학살은 특별대의 특별전에 대한 보복과 식량과 물자 조달을 위한 목적으로 학살한 일이 빈번했다.

한편 무장대의 학살이 있을 때 경찰의 움직임은 없었던 지서가 많은데 주민의 생

135) 제민일보취재반 『4.3은 말한다』 5, 전예원, 1998, 87~92쪽

136) 같은 책, 115~130쪽

137) 같은 책, 196~198쪽

명보초라는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무장대의 습격이후 오히려 마을 주민들을 학살하고 감금하는 일이 빈번했다.

당시 주민들은 산사람의 편도 경찰의 편에도 설 수 없었고 산사람도 무섭고 경찰은 더 무서운 암울한 시대를 살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했다.

### 3) 처형으로서의 학살-수형인 학살과 예비검속자 학살

제 1회 군법회의는 9연대가 초토화 작전을 집중적으로 벌이던 1948년12월 3일부터 29일까지 14차에 걸쳐 개최되었다. 그런데 이때 군법회의에 회부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9연대의 무작위한 토벌작전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던 중산간 주민들이었다. 이전의 학살 대상 및 검거대상이 젊은 남성을 주로 했다면 11월 중순이후부터는 여성, 노인, 어린이 등 약자에 이르는 무차별적인 학살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당시 미군자료는 포로 8백명을 잡았다고 상부에 보고하고 있다.<sup>138)</sup> 그런데 포로라고 분석된 사람들은 초토화과정에 해안지역으로 피난한 중산간 지역의 사람들로 경찰의 일방적 심문 후 군부대에 넘겨진 사람들이었다. 부당한 군법회의를 거친 여성수형자들은 내란죄라는 명목으로 배를 타고 제주를 떠나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 형량별 분포를 살펴보면 1년 형이 38명, 5년 형이 7명, 15년 형이 3명으로 1차 수형인 82명 중 여성수형인은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1회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징역 1년 형을 언도 받고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던 강정순 할머니의 경우처럼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형량이 얼마였는지도 모른 채 육지 형무소로 끌려가 내란죄라는 억울한 죄목을 부여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sup>139)</sup> 4.3당시 중산간 마을에 살았던 주민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모두 산 쪽 무장대와 연관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람들의 죄 아닌 죄라면 중산간 마을에 산 것 밖에는 없다.

한편 1948년 12월 29일 9연대가 철수하고 2연대로 교체되면서 처음에는 귀순작전을 통한 온건한 방법을 취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2연대는 해안마을주민에 대한 대대적 학살을 감행했다.<sup>140)</sup>

이러한 학살을 뒤로 1949년 3월 2일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가 설치되면서 무장대와 전면전을 펼치면서 동시에 중산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귀순 작전을 펼치게 되었다. 이러한 선무종작에 따라 많은 입산자들이 귀순하게 되었다. 그러나 귀순한 사람들은 곧바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당시 자진 투항자나 작전 중 생포

138) 제민일보, 『4.3은 말한다』 4, 전예원, 41~43쪽

139) 강정순(79세,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제주 4.3연구소, 『무덤에서 살아나온 4.3수형자들』, 역사비평사, 2002, 33쪽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하): 피해대중과 학살의 정치학』, 역사비평사, 1999, 589쪽

140) 대표적인 학살로 49년 1월 12일의 의귀리 민간인 학살과 1월 17일 북촌리 대학살을 들 수 있다.

된 자는 강제적으로 억류되었다. 이것이 당시 선무공작의 원칙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여자, 노인, 어린이 등 민간인이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작전수행 후 수용소에 감금된 자는 1천 5백여 명에 이르렀으며 무장대 지지자로 분류된 3백여 명은 사살되었다.<sup>141)</sup>수형자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산간마을에 본거지를 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는 부녀자와 아이들은 토벌을 피해 산속을 헤매다가 하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을 알려주는 사실이다. 내려오면 살려준다는 말에 백기를 들고 내려왔으나 주정공장 등 임시 수용소에 감금되었던 사람들은 일부만이 석방되고 상당수는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 1949년 5월 11일 수감된 제주읍내 주정공장 수감자 중 부인의 수는 남성의 수보다 약 3배가 더 많았고 심지어 갓난애와 어린이들도 엄마와 함께 끌려왔다.<sup>142)</sup> 이렇게 집단 수용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1949년 6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제 2회 군법회의가 열렸다. 2회 군법회의 결과 전주형무소에 수감된 제주여성들에 대한 형량은 1년형이 22명, 3년형이 25명, 5년형이 13명, 7년형이 21명, 무기징역이 3명으로 총 84명에 이르렀다. 이 중 10~20대 여성들은 전체의 75%를 차지했고 직업구성으로 대부분이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었다.<sup>143)</sup> 젊은 여성들을 죄의 유무를 제대로 가리지도 않은 채 무작위로 무장대와 의 연관이 있을 것으로 결론지어 자의적인 법집행을 수행했던 것이다.

한편 4.3수형인의 형무소 생활은 또 다른 차원에서 삶을 위협했다. 비좁고 불결한 형무소에서 당시 5살된 아들을 잃은 한 여성은 아들의 사인(死因)인 폐렴이 형무소의 불결하고 열악한 환경에 의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주정공장에서 다른 사람을 초명한 것을 자신으로 오인하여 대답하는 바람에 1년형을 언도받고 아이와 함께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이 여성의 인생은 1년형의 형무소 생활로 인해 제주도에 남겨진 나머지 아이들마저 잃게 된 계기가 되었다.<sup>144)</sup>

이와 같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형무소의 환경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 아니었으며 재소자들은 좁은 공간에서 굶주림과 추위, 더위에 견뎌야 했다. 형무소가 너무 비좁아지자 전주형무소 재소자 중 일부는 1949년 당국에 의해 안동 형무소로 이감되는 사실이 당시의 상황을 입증해준다.<sup>145)</sup>

한편 여성수형인의 경우 대부분 전주형무소로 분산 배치되었는데 강정순 할머니의 경우처럼 1년형을 언도 받은 사람들은 한국전쟁 발발 이전 석방되어 목숨을 구했으나 김백함의 경우 전주형무소에서 5년형을 언도받는 와중에 행방불명되었다.<sup>146)</sup>

141) 주한미군 사령부, 「G-2 일일보고서」, 1949년 4월 1일

142)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편집, 「대한민국 국회 제 2회 속기록」 제 59호 1949년 3월 21일

143) 전주형무소 4.3관련 제주인 재소자 명부

144) 제주 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2, 한울, 1989, 200쪽

145) 박찬식, 「한국전쟁기 제주 4.3관련 수형인 학살의 실상」, 『4.3과 역사』, 2001

그런데 한국전쟁이 발발 한 후 국군이 후퇴할 때 경찰과 특무대원들은 전주에서 보도연맹원 및 경찰감시 대상자를 대상으로 전주시 황방산에 끌고가 구덩이를 파놓고 총살하는 등 전쟁 중 학살이 일어났다.

행방불명된 수감자의 대부분은 한국전쟁시기 인민군에 동조할 것을 우려한 남한정부의 예비적 학살에 의해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대전형무소의 경우 대전시 한국전쟁시기 동구 낭월동에서 집단 학살된 시신이 발견되었고 부산형무소의 경우도 형기가 많은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형무소 운동장에 집결시켜 죽이기 시작했다. 또한 형무소 밖으로 끌려나간 사람들의 대부분은 학살되었다.<sup>147)</sup>

재판과정에서도 명확한 논거와 증거없이 욕지로 끌려갔다가 한국전쟁발발과 함께 돌아오지 못하고 무차별하게 학살당한 여성들에 대한 수형의 법적 근거는 두가지의 법이었는데 현재와서는 법률의 정당성마저도 의문시되고 있다. 제주 4.3 당시 1회 고등군법회의를 가능케 한 법적 근거는 계엄령이었고 1949년 6~7월의 고등군법회의는 국방경비법 제 32조와 33조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계엄령은 1948년 11월 17일 선포되었으나 건국헌법에 따른 계엄법은 제주지구 계엄선포 1년 후인 1949년 11월 24일에 제정 되었음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 <sup>148)</sup> 또한 2회 군사재판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방경비법은 공포된 바 없는 정제불명의 법률이다. 국방경비법은 남조선 과도정부의 법률로서 1948년 7월 5일 공포, 법령호수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남조선 과도입법정부는 국방경비법이 공포되기 한달 보름전인 1948년 5월 20일 해산하였다. <sup>149)</sup>

공포된 일도 없으며 법적 효력도 없는 국방 경비법에 따라 군사재판을 받고 처형되거나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집단 학살당한 수형인들은 무고한 학살의 피해자인 셈이다. 또한 고향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평생 연좌제의 피해로 고통을 당해야 했다.

한편 예비검속자 학살의 시발점은 선무종작에 의한 주민들의 자진 귀순유도에 있었다. 1949년 10월부터 선무종작기간으로 설정하고 귀순을 장려하여 11월 말까지 본도의 귀순자만 5,283명으로 집계되었다.<sup>150)</sup> 보도연맹은 제주도내 네 군데 지역에 설치된 경찰서 관할 구역별로 조직되었고 그 밑에 각 지서별 관할 지부가 있었다. 경찰서별로 구금된 인원은 제주경찰서 4~5백 명, 서귀포 경찰서 350명, 모슬포 경찰서

146) 제주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부설 4.3고충상담소, 「4.3고충상담서」, 2000

147) 심규상, 「1950년 7월 8일 낭월동을 기억하라」, 『월간 말』, 2000년, 2월호

148) 김순태, 「제주 4.3당시 계엄의 불법성」, 『제주 4.3연구』, 역사비평사, 1999, 153쪽

149) 조용환, 「성문화된 관습형법? - 국방경비법의 인권문제」, 『21세기의 인권』 II, 한길사, 2000, 1175~1176쪽

150) 동아일보 1949년 12월 2일

347명 등 집계에서 제외된 성산포 경찰서를 포함하면 1천여 명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sup>151)</sup>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전국 경찰국에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권'을 하달하고 전국 요시찰인 전원을 즉시 구속할 것과 형무소 경비를 강화할 것 등의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에서도 7월 6일 제주지구 비상계엄 사령관으로부터 '전 제주지구 예비 검속자 명부의 제출의 권'이 7월 11일에는 다시 치안국장으로부터 '불순분자 검거의 권'이 각각 제주도 경찰국장에 하달되었다.<sup>152)</sup> 7월 8일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예비검속은 계엄군의 주도하에 군, 경의 합동작전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6월 말부터 8월 초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교사, 학생,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예비검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sup>153)</sup>

선무공작시기에 귀순한 민간인과 보도연맹 원들을 예비 검속하여 대량 학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 지역에서는 7월 말부터 8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제주읍과 서귀포, 모슬포 등지에서 여러 차례 집단 총살이 이어졌다. 제주경찰서 관내 제주읍, 조천면, 애월면 지역의 학살자는 제주경찰서, 주정공장에 구금했다가 1950년 8월 4일 제주항으로 끌고가 배에 태운 후 수장시켰다.<sup>154)</sup> 서귀포 경찰서 관내 서귀면, 중문면, 남원면에 대한 예비 검속자들은 서귀포 절간고구마 창고에 수감시켰다가 총살시켰다. 모슬포 경찰서 관내 대정면, 한림면, 안덕면의 예비검속자들은 절간고구마 창고에 수감된 사람들과 한림항 어업 조합 창고에 수감된 사람들이었다. 모슬포 절간고구마 창고에 수감되었다가 학살된 사람들은 여성을 비롯하여 노인, 어린이 등 옥석을 제대로 가리지 않은 채 송악산 서편의 첫알 오름의 탄약고 터에서 집단 학살당한 것이다.<sup>155)</sup> 이때 희생된 사람들은 나중에 시신이 서로 엉켜있어 수습하기조차 힘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유족들은 백조일손지묘(百祖一孫之墓)에 합장했다.

같은 날 한림항 어업조합 창고에 수감되었던 사람들은 새벽 2시에 같은 장소에서 희생되었다. 절간고구마 창고에 수감되었다가 첫알 오름 탄약고 터에서 희생된 사람들과 만병디 공동장지에 안장된 61명을 합해 1950년 8월 20일 학살자는 총 250명이었다.

61명의 만병디 희생자 중 여성은 9명으로 연령과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2, 30십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중 학생들은 때라 살포 등의 활동을 했던 이유로 수감되었고 기혼자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편대신 잡혀온 경우가 많았

151) 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월간 말, 2000, 45쪽

152) 같은 책, 209~210쪽

153) 같은 책, 197~200쪽

154) 제주 4.3연구소, 『4.3과 역사』, 23호, 12쪽

155) 현재 백조일손지지(백 할아버지의 한 자손의 땅)에 희생자들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다. 제주 4.3연구소, 『백조일손지지의 한을 넘어서』, 『4.3 장정』, 19~21쪽

다. 한편 당시 수감자에 대한 기준 없는 수감은 경찰의 뇌물수수에 따른 무작위의 채워넣기식 수감의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오빠가 수감되어 있어서 밥을 갖다주러 갔는데 친구 어머니가 감혀 있다가 나왔어요. 그 어머니 내 밥을 밟으면서 걸으라 힘을 쓰라고 속삭였습니다. 나중에야 그 의미를 알았죠. 돈을 써서라도 빼라는 겁니다. 그때 어려서 몰랐습니다.”<sup>156)</sup>

1950년 제주경찰서 관할 예비검속 대상자 중 여성은 총 14명으로 대부분은 2,30대의 젊은이였다. 이들의 연령과 직업별 분포와 제주경찰서에서 작성한 명부에 나타난 범죄개요에 대해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예비검속자 명부<sup>157)</sup>

성명	연령	직업	본 적	범죄개요
정해자(A)	24	무직	조천면 함덕리	1. 남로당원 2. 금품제공
김유백(A)	44	농업	와산리 상동	1. 여맹원 2. 군자금 제공
홍춘화(A)	26	농업	상귀리 상동	상 동
이복선(A)	21	교사	애월면 팍지리	상 동
신희범(A)	20	교사	조천면 신촌리	상 동
김명애(A)	19	교사	상 동	상 동
강애정(B)	19	무직	용담리	1.반도가족
김병열(B)	25	농업	연평리	1. 여맹원 2. 입산
고임생(B)	29	농업	조천면 신촌리	상 동
이순문(B)	28	농업	함덕리	1. 여맹원 2. 밀회 및 금품제공 연락
박중화(B)	27	농업	조천리	1. 여맹원 2. 입산
고순옥(B)	30	농업	애월면 하귀리	상 동
진인옥(B)	43	농업	상동	상동
양군현(B)	48	농업	상동	상동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예비검속된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맹원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그러나 기흥 마을 부녀회가 여맹으로 개칭된 것이기에 사상성에 관계없이 희생된 여

156) 7.7만병대 유족회, 『만병대에 묻힌 진상과 증언』, 온누리, 2002.

157) 단기 4283년 9월 4일 현재 제주경찰서 예비검속자 명부(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월간 말, 2000, 234~245쪽)

성들이 많았다.

한편 경찰은 예비검속자들을 A,B,C,D의 4등급으로 구분되었다. A등급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사상이 애매모호한자, D는 극히 위험자 자로 구분된 것이었다. 그러나 처형과정에서 C, D 등급의 사람뿐 아니라 A, B 등급 및 구속되지 않은 사람들도 마구잡이로 연행하여 처형했다.

한편 예비검속자 중 임신부에 대한 제주경찰국장의 보석 석방 요구가 있었다. 만삭의 몸으로 열악한 수용장소에서 임신부가 수감되어 집단생활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체적인 질병을 가져와 약화된 상태였다. 그러나 석방은 불허한다는 방침을 육군본부 정보국 제주지구 CIC장이 하달하였다. 이렇게 생명에 위협이 가해져도 당국은 약자의 보호와 여성인권을 당국에서의 적절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뿐 석방은 끝내 불허하였다.<sup>158)</sup>

이와 같이 여성들을 포함한 제주도의 민간인들은 4.3의 과정에서 억울하게 아무런 재판의 절차도 없이 죽어갔고 인권을 유린당했다. 여기서의 집단 학살은 이승만 정권의 위기감과 전쟁의 와중에서 재발한 이데올로기적 살육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

158) 단기 4283년 9월 12일 예비검속자 중 임신부 신병조치에 관한 건.

### Ⅲ. 4.3항쟁이후의 여성의 삶

#### 1. 경제적 차원: 여성가장의 역사와 생존으로서의 재가

1948년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있었던 군경 토벌대에 의한 대규모 학살은 주로 중산간 마을을 무대로 전개되었다.

1948년 11월 제주도 전역에 소개령이 내려지는데 이는 중산간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작전이었다. 이와 같은 작전은 일본군이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점령지 주민들로 하여금 부락단위로 유격대의 침입을 자치적으로 방어하거나 토벌군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제 주민들은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폭도에 가담하던지 제주 읍이나 일주도로 주변의 치안이 확보된 해안부락으로 피난 가든지 양자택일의 기로에 놓였다. 선택의 기로에서 낯익은 마을 주민이 있는 무장대는 무작위로 토벌하는 군, 경의 토벌대보다 덜 무서웠으므로 심정적으로 산쪽(무장대)을 지지하는 이가 많았다. 더욱이 소개령에 따라 해안부락으로 하산한 주민들에 대해 경찰들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sup>159)</sup>수많은 중산간 마을 사람들이 집단 학살당했고 다른 사람들은 해안가 마을로 내려와 살았는데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로서는 갈 데가 없었다. 결국 해안가 마을 주민들에게서 집을 빌리거나 움막을 짓고 살아야 했다. 중산간 주민로서는 별별 천대를 받으면서 목숨을 연명하는 꼴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더욱 심각한 것은 생계를 이어갈 터전이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4.3이후 제주 전체지역에서 160개에 이르는 많은 부락이 참화를 입었고 피해가 초만 1만 5천 2백 28호로 이재민은 전체 인구의 35%인 9만 1천 7백 32명이었다고 한다.<sup>160)</sup>

한편 입산 금지가 풀린 것은 1954년 가을이었다. 그해 9월 21일 제주도 경찰국장은 한라산 금족 지역을 전면 개방할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복귀가 가능한 지역은 중산간 지대 중 일부 지역에 한정되었고 아직 상당 부분이 적성지역 및 중비 출몰지역으로 묶여 있었다.

해안가로 내려와 살던 중산간 마을 사람들은 마을이 재건되자 다시 고향으로 갔다. 그러나 재건된 마을의 전체 가구 중 대부분이 미망인 가구였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자신들의 농경지와 마소를 풀어먹이던 목장을 한꺼번에 잃고만 것이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친족관계에 의해 조직된 마을에서 남성이 없어졌다는 것은 남성을 매개로 한 사회관계의 붕괴를 의미하며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경우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의 박탈을 의미했다.

159) 김익렬, 「4.3의 진실」, 『4.3은 말한다』 2, 전예원, 1994, 302~303쪽

160) 제주도, 『제주도지』 제 2권, 1993, 47~116쪽

실제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죽자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 양자로 들어와 제사에 대한 봉사권과 재산을 모두 가져간 사례도 있다.<sup>161)</sup>

1951년 제주시 사회당국 조사에 의하면 미망인 수는 여성 인구의 1할인 3,273명이었고 이 중 7할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기록했다.<sup>162)</sup>

“제주여성들은 재가를 잘 하지 않아. 우리 어명도 나하나 키우고 지금까지 사신거 주. 여자 혼자 힘으로 잘 살기는 힘들어.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었어.”<sup>163)</sup>

제주도 여성은 남편과 사별하고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재혼하지 않은 관행이 있다. 강덕화 할머니도 4.3당시 남편을 잃고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온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고순연의 어머니 강덕화(92세)할머니는 병마와 가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sup>164)</sup> 4.3당시 마을은 모두 불태워지고 난 후 어머니의 노동력만으로 살았으나 가게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 여성 노동력만으로는 힘들었다고 토로한다.

그러나 여성이 남성 없는 가게에서 가장 노릇을 하며 힘들게 살아온 반면 여성들 스스로 마을을 재건하고 가게의 독립적 주체가 된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는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피해가 컸던 조천은 남편들이 다 죽고 미망인이 많아. 그 당시 군인들이 와서 마을을 모두 불태우니 남은 게 없었지. 그래도 개가한 사람은 없어. 난리 후에 우리가 이 마을을 다 다시 세웠지.”<sup>165)</sup>

4.3당시 초토화 작전으로 산간마을은 모두 불태워졌고 산간에 살고 있었던 마을청, 장년들 중에 산으로 도망가지 않았던 사람은 전부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조천의 대흘리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은 미망인 되어 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며 개가하지 않고 여성의 힘으로 마을을 재건하고 어린 자식을 기른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4.3당시 살아남은 여성들은 죽자 해도 아이들 때문에 죽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한편 독립적인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같은 처지의 재건 가구 중 미망인 가구와 남

161) 유철인 외, 「제주 4.3경험과 마을 공동체의 변화」, 『한국문화인류학』 제 34집, 2001, 127쪽

162) 제주신보 1961년 2월 23일

163) 고순연(73세, 제주시 도남동, 2003년 7월 29일 채록)증언.

164) 강덕화(92세, 주소 위와 동일)

165) 한순신(82세 조천 대흘리, 2003년 7월 30일 채록)증언

성 가구의 경제적 격차는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집안에 남성 노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다른 집의 남성 노동력을 빌려야 했다. 이는 4.3의 과정에서 청장년층의 남성들 대부분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망인 가구는 생존한 남성들과 수눌음의 노동 교환을 해야 했다. 그런데 수눌음의 노동 교환은 성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수눌음은 하루 동안 도움을 받으면 하루를 갚는 형식이지만 당시 여성들은 남성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남성 노동력 하루를 빌리면 5일 동안을 일해줘야 했다.<sup>166)</sup>

이렇게 불평등한 노동교환방식을 감수하고서라도 살아남은 여성들에게는 남아 있는 가족에 대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다.

“4.3때 남편하고 아들하나 죽었지. 근데 시집에는 3명의 어린 시동생과 시아버지, 시 할머님이 살아 계셨어. 나머지 4명의 자식들을 모두 내가 책임졌으니, 그 많은 빚은 빼앗기고 소, 집은 모두 불타고 남은 건 손가락 빠는 아이들이었지.”<sup>167)</sup>

“그때 내 나이 스물여섯이었습니다. 맨손으로 늙은 시부모 모시고 어린남매를 키우려니 총 맞은 다리를 질질 끌면서 오일장마다 돌아다니는 장돌뱅이 생활을 했어요. 또 물질도 했어요. 아들이 살았다면 이 사실을 전해줄 텐데 어릴 적에 사고로 죽었어요. 이제껏 이런 말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살아왔는데.....”<sup>168)</sup>

4.3으로 남성이 없는 마을에서 여성이 책임져야 할 역할은 무장대를 막기 위해 성을 쌓고 보초를 서는 일, 군, 경의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 불타 버린 집을 짓고 마을을 재건하는 일, 가족의 먹거리를 장만하는 일 등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맨날 소하나, 말 하나 잡아놓아라 하고. 우리에게 차례 정해서 하루 두 사람씩 일허렌 허명, 소고기 삶으라, 뭐하라 시키는디. 조금만 뺏하면 심어당 때리고. 산 절로 행 우리가 댕겼수과? 애기 울어도 젓 먹이러 가켄 못 했수다.”<sup>169)</sup>

이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토벌대의 무리한 요구는 먹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공포와 삶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했다.

166) 이정주, 앞의 논문

167) 강도화(81세 안덕 서광 1리, 2003년 7월 31일 채록)증언

168)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4, 전예원, 1997, 314쪽

169) 제주 4.3연구소 편, 『이제사 말함수다』 I, 한울, 1989, 148쪽

폐허가 된 마을을 보며 집도 밭도 모두 빼앗기고 살아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고단함이 여성의 삶이 무게를 짓눌렀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의 앞날에 4.3당시의 가족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장애가 될 때 어머니로서 느껴야 했던 비극적 심정은 반세기가 훌쩍 지나버린 지금에서도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4.3사건 이후 마을의 재건, 성비의 극심한 불균형 등으로 부양을 책임진 여성들, 죽도록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일하는 여성, 생활력이 강한 여성'으로 여성의 정체성이 형성되어 갔다.

제주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후 자녀가 있는 경우는 대개 재혼하지 않고 가계를 일으켜 세우며 가정의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다.

남편을 잃고도 혼자 아이들 키우며 시부모를 봉양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정서가 팽배하다.

“조천에는 홀어명이 많아. 다 쓰러져간 집도 우리가 짓고 땅도 다시 일구고 살았지. 제주여자들은 홀어명이 되어도 애기 있으면 개가하지 않아. 혼자 사는 거지.”<sup>170)</sup>

대흘리 마을의 할머니들은 이구동성으로 4.3사건 이후 혼자서 아이들 키우고 집과 마을을 다시 짓고 재건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시집 오랜 여러 군데에서 막 말했지만 가질 못허영. 경해도 죽은 사람도 이신디 내가 이 애기 버리고 가겠느냐 허영 조곤 았았당 보난 널모레 공동묘지서 오랜 허난 갈 거라.”<sup>171)</sup>

4.3당시 남편을 잃고 딸 하나를 믿고 혼자 살아온 제주여성의 강인함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남편을 잃고 아들 자식이 없는 경우 양자를 들여서라도 재산권과 봉사권을 행사하려는 사례도 많았다. 이는 유교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질서속에 여성은 양자를 통해서라도 사회성원권을 획득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부모를 모두 여의고 혼자 살아 남은 한 여자아이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으나 친척들이 조상의 제사봉사를 위해 양자를 들였다. 조상의 땅을 모두 양자에게 이전시켜 버림으로써 여자아이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채 할머니와 불우하게 살았다고 한다.

한편 자식이 죽었거나 없고 행방불명된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아오지 않자 20대의

170) 김영옥(75세 조천면 대흘리, 2003년 7월 30일 채록)증언

171) 제주 4.3연구소, 『이제사 말함수다』 II, 한울, 1989, 155쪽

젊은 미망인은 경제적 기반마저 무너져 버린 현실에서 개가를 생존전략의 하나로 선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홀어명 중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시집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친정식구마저 죽은 여성의 경우 생존전략의 측면에서 개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안덕면 상창에 살았는데 그때 아기가 3살이었어. 사태가 나니 남편은 산으로 숨고 마을에 토벌대가 들어왔지. 총살을 시키는데 아기가 등에서 총맞아 죽고 나만 용케 살았지. 경찰에 잡혔는데 시댁 식구들을 알리지 않았어. 나 혼자 희생하면 될 줄 알았어. 석방되어 나오니 시집식구들은 온데 간데 없고 해서 친정가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다가 사태가 끝나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살고 있어.”<sup>172)</sup>

“4.3사건에 남편이 죽었는지 이복사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예편이 있길래 같이 살자 하여 아들형제 낳고 딸형제 낳고 지금 사는 거라. 대졸에는 이런 홀어명이 아주 많았주게.”<sup>173)</sup>

제주에서는 결혼을 해도 곧바로 시집으로 가서 살지 않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친정에 머무는 풍습이 있었다. 또한 결혼즉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관행도 많아서 4.3이후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법적으로 미혼모인 상태가 된 경우도 있고 재산을 주장할 수 없었던 사례도 빈번하다.

고씨할머니는 4.3과정에 아들들 모두를 잃었다. 남편의 죽음으로 시집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아들이 상속권도 주장하지 못했다. 전략촌 시절 아들마저 죽자 작은 아버지의 아들을 양자로 들였으나 제사와 재산만을 모두 가져갔다. 토지를 잃고 고씨 할머니는 머물 거처도 없이 이집 저집을 옮겨 다니며 더부살이를 해야만 했다.<sup>174)</sup>

한편 개가한 여성들의 많은 경우 작은 각시(첩)가 되기도 했다.

“사태에 남편이 없어지니 그냥 살다가 이 집에 아들이 없어지니 아들 낳아달라고 나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기는 했는데, 지금은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sup>175)</sup>

작은 각시가 되어서라도 경제적으로 생존의 막막함을 해결하려는 생존전략이 개가

172) 양춘계(78세, 대정면 상모1리, 2003년 7월 31일 채록)증언

173) 제주 4.3연구소 편, 『이제사 말함수다』 I, 한울, 1989, 125쪽

174) 유철인 외, 『제주 4.3의 경험과 마을 공동체의 변화』,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 제 34집, 2001

175) 7.7만병디 유족회, 『만병디에 묻힌 진상과 증언』, 온누리, 2002, 132쪽

의 절박한 이유가 되었다. 한편 작은 각시가 된 경우에는 집안의 대를 잇는 아들을 낳아주는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이는 4.3와중에 남성의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는 분위기에서 대를 잇고자 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작용한 결과이다.

## 2. 사회적 차원: 여성들의 기억과 연좌제

여성들은 4.3에 대한 인터뷰에서 4.3을 사태나 시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4.3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기 싫어하며 적대적 태도를 먼저 보였다. 어디서 왔는지 왜 4.3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지 질문을 먼저 연신하고 나서 여성 자신의 증언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의 역사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자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4.3에 대한 기억도 가족을 잃었던 기억에 대한 것이 전부 일 뿐 자신의 성적 고문경험이나 성폭력의 당사자로서의 경험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왜일까? 그것은 여성 자신 스스로가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즉 여성은 자신의 기억을 스스로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여성의 성적 피해를 당사자에게 묻는 일 자체가 당사자인 여성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 있다.

성적 폭력은 육체적 고문보다 더 큰 고통과 수치심이 되어 피해 여성의 정신세계를 억압한다. 이는 전통적 정조 관념 하에서 다른 남성에게 자신의 몸을 드러낸 것 자체가 순결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초토화 작전으로 대대적인 학살이 자행되던 어느 날 제주 한 지역에서는 토벌대가 남녀를 구분시켜 놓고 여성들에게는 달을 보라고 명령하고 색출하였다. 색출한 여성들을 데리고 갔다가 열흘이 넘게 살려두었다가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학살의 와중에서 살아 돌아온 한 할머니는 당시의 상황과 경험에 대해 입을 함구하고 있다. 심지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질문하면 신경질적으로 화를 낸다고 한다. 당시의 일을 겪고 처녀시절에는 발진을 하고 결혼 후에도 증상이 가시지 않아 여러 차례 굿판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의 경험은 여성으로서는 기억하기 싫은 사건으로 할 수만 있다면 기억에서 완전히 지우고 싶을 만큼 치욕적인 것이었다.

반면 살아남은 남성들은 이웃의 여성들이 당한 성폭행, 서청과의 강제결혼, 생존전략으로서의 개가에 대해 대신 증언한다. 여성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일은 없다. 이는 당시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여성의 정절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며 여성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수치스러워하기 때문에 기억을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여성들이 기억하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가족에 관한 것과 사건 이후 살아남은 여성으로서 고단했던 삶의 면모를 부각시켜 기억하고 있다.

남편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년간 육지를 헤맨 한 할머니는 남편의 생환을 염원하며 10년동안 제사를 모시지 않았다. 25살에 청상과부가 된 고재순 할머니는 육지 형무소에 이감된 남편을 찾아 수년간을 고향을 등진 채 헤맨 것이다.<sup>176)</sup>

“남편은 처자식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 못내 안타까웠는지 업고간 팔과 내 팔을 꼭 쥐고 숨졌습니다. 그 모습이 가슴에 남아 재가도 앓고 딸하나를 키우고 살다보니 두 살이던 딸이 어느덧 선살입니다.”<sup>177)</sup>

이와 같이 여성들의 기억에는 가족의 죽음과 그 이후의 자신의 삶을 가슴에 강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또한 여성 가장으로서 엄청난 노동을 감수하며 시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을 용성시켜 가계를 일으켜 세운 일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얘기하고 있다.

한편 4.3은 살아남은 여성에게 화병이라는 특이한 병을 평생토록 앓게 했다. 이는 억울하게 죽어간 남편과 가족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아픔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편이 어디서 언제 죽었는지 모릅니다. 끌고 간 사람들이 뭐라 말이 없었으니 무슨 죄목으로 희생됐는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4남매를 뒀는데 혼자서 제대로 키우지 못해 이젠 하나만 남았어요. 남편이 죽은 후로 가슴이 콕 막히고 심장이 뛰는 병이 생겨 50년간 나를 괴롭힙니다. 병원에 가도 무슨 병인지 모른답니다.”<sup>178)</sup>

이와 같은 화병은 남편의 죽음에 대해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무력감에 대한 분노와 한을 긴 세월동안 풀지 못했기에 생긴 병이다. 이렇게 여성에게 4.3에 대한 기억은 함께 겪고 살아남은 남성 증언자들처럼 쉽게 내뱉지 못하는 무거운 덩어리 같은 것이다. 말하지 못하는 기억은 한으로 누적되어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몸을 통제하며 고통을 주고 있다.

또한 4.3의 와중에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마저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살아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살아온 윤희춘 할머니는 이때부터 목에서 피가 쏟아져 나왔고 그러다 보니 목둘레에 혹이 생겼다고 한다.<sup>179)</sup> 이러한 여성들의 한과 울분은 정신적인 고통뿐 아니라 육체적 고통인 이름모를 병을 앓게 하고 있다.

한편 여성들에게 4.3은 할 수만 있다면 지우고 싶을 만큼 가슴 아픈 기억이다. 하

176)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5, 전예원, 1998, 45쪽~46쪽

177)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4, 전예원, 1997, 322쪽

178)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5, 전예원, 1998, 352~353쪽

179) 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월간 말, 2000, 80쪽

지만 되살리고 싶지 않은 기억은 자식들의 앞날을 가로막는 연좌제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성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짓누르게 만든다.

1948년 9월 서청에 의해 부친과 오빠를 잃고 병든 어머니와 동생 3명을 키운 소녀 가장 이순정씨는 초등학교 교원임용에서 신원조회 시 4.3과 가족이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임용이 취소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sup>180)</sup>

또한 예비검속으로 무고하게 남편을 잃은 이도영 박사의 어머니는 자식이 교사로 임용될 때도 신원조회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군대에서조차 신원조회가 문제 시되고 미국 유학시 비자문제에서도 신원조회에 걸리는 등 억울하게 앞날에 장애가 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사적인 영역에 머물며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며 한 평생 살아온 여성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연좌제의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큰 상처인 자식의 앞날에 장애가 되는 연좌제의 피해를 지켜보아야 했다.

자녀들을 성장시키면서도 항상 '호로자식'이나 '빨갱이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4.3의 아픔을 삼켜야 했다.

7.7만병더 유족회장을 지내고 있는 오용승씨도 교사로 재직시 항상 조사와 감찰을 받고 주기적인 감시에 시달렸다고 토로한다.<sup>181)</sup>

또 한 교사는 교실방화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신원이 밝혀져서 중앙정보부에 잡혀가 곤욕을 치르던 중 방화주범이 체포되어 풀려날 수 있었다.<sup>182)</sup>

홍문평씨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군복무시 좌천의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막내 아들이 학사장교로 군에 가려고 했을때 신원조회에 걸려 갈 수가 없었다. 또한 그의 조카딸도 한국은행에 입사하려고 하자 신원조회에 걸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농협으로 취직하게 되었다.<sup>183)</sup>

또 어떤 공무원은 자신의 보직의 위태함을 느껴 자신의 조카에게조차 유족임을 알리지 않다가 최근에야 사실을 알리고 조카로 하여금 부친의 묘소를 찾아 제삿날을 제대로 알 수 있게 했다.<sup>184)</sup> 연좌제의 공포는 자신의 삶을 뒤틀리게 만들 수 있다는 생의 위협으로 다가와 조카에게마저 비밀로 유지한 것이다. 자신과 후손들을 학살의 과거로부터 분리 단절시킴으로써 빨갱이집안의 오명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연좌제란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가 있는 가족에게 연대책임을 지게하고 처벌하는 제도이다. 연좌제의 기원은 중국의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교사상을 제도적으로 이어받은 조선시대에는 정국의 안정을 위한 방편으로 반역자를 처벌하기 위한

180) 4.3증언 본뜰이 마당, 팜플렛, 2002, 10쪽

181) 오용승(66세, 한림읍 명월리, 2003년 7월 29일 채록)증언

182) 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월간 말, 2000, 80쪽

183) 4.3도민연대 팜플렛

184) 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월간 말, 2000, 80쪽

혈연중심의 적용으로 바뀐다. 1980년 법적으로 폐지된 연좌제는 실제적으로는 무형이든 유형이든 유족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 왜냐하면 반(反)국가단체 행동과 그에 대한 동조자에 대한 규정과 처벌이 폐지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 임용시 신원조회와 관례는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외국여행시 4.3관련자라는 이유로 비자발급이 힘들어지는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sup>185)</sup>

한편 제주 4.3도민연대의 4.3관련 연좌제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2000년 8월 13일)에 따르면 연좌제의 고통을 당했다고 진술한 사람이 86%였다. 4.3관련 가족들이 겪은 연좌제 피해사태에 대한 구체적 응답은 다음과 같다.<sup>186)</sup>

<표 2> 연좌제 피해사태에 대한 응답

연좌제 피해 대상	피해 사례	비율
본인 56%	공무원 임용시험	26%
	사관학교 등 각종 입학시험	23%
자식 40%	국공기업이나 사기업 취직 또는 승진에서	18%
	군(경찰)에서 승진 또는 불이익	16%
본인, 자식, 친지포함 60%	국내의 여행 및 출입국 과정	8%
	일상생활에서의 감시	30%
	각종 신원조회	60%

위의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 것과 같이 일상생활에서의 감시와 각종 신원조회시의 불이익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김춘배씨는 억울하게 4.3당시 마포형무소에서 재소한 사실로 인해 그의 딸과 가족은 일상생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가족은 늘 감시를 당했다. 우리 엄마가 너무 답답하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목살도 잡고 난리를 치니 그 사람들이 1982년도에 ‘보안감찰대상자’라고 적혀 있는 문서를 보여주었다.”<sup>187)</sup>

위의 사례에서처럼 법적으로 폐지된 연좌제 및 감찰사태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반복되어 4.3관련 당사자 및 가족의 삶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4.3당시의 수형자 및 재소자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채 일방적

185) 4.3도민연대 팸플릿

186) 제주 4.3진상규명과 도민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설문조사, 2000년 8월 13일

187)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주 4.3사건 진상보고서』, 2003, 538쪽

형의 언도와 수감을 당했던 인권침해의 피해자인데 부당한 과거의 제적으로 인해 가족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현실은 이중의 인권침해인 것이다.

여성유족은 공적영역에서 참여하는 기회가 적어서 직접적인 사회적 차별을 당하는 사례는 적었지만 자신의 자식이나 형제 등이 신원조회에 걸려 좌절을 경험할 때 이를 지켜보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또한 일상적 삶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성장기를 보내야 했고 가족의 순탄치 못한 일상생활을 경험해야 했다.

## 맺음말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제주도는 전국의 상황과 동일하게 자주적 독립국가의 건설과 사회개혁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자치적으로 각 리단위부터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어서 제주도 인민위원회는 1945년 9월 22일 미군정의 진주이전에 조직되었는데 인민위원회의 성격은 인민위의 상향식 조직결성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좌우 연합적이며 대중적 성격이 강했다. 인민위의 대중적 성격과 지도자들의 대중적 신망으로 인해 제주도 전 지역의 인민위원회의 참여와 활동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sup>188)</sup>

그러나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는 자주독립국가의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조선민중의 소망을 좌절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분단국가 수립이라는 좌절은 제주 민중으로 하여금 순응적인 자세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제주인들의 5.10단독선거 반대의 정치적 행동에 근대교육을 받고 지식인이 된 엘리트 여성지도자들의 적극적 항쟁이 함께 했으며 야학을 통해 사회사상을 고취시켜 나간 제주촌락의 이름 없는 빈곤층의 자녀들도 이에 독려되었다. 사회의식에 눈뜬 여성들은 분단을 가져올 남한만의 단독 정부수립과 서청 등 용원경찰 등의 횡포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 20대 이하의 젊은 미혼 여성들과 여학생들은 해방 후 민청 및 민애청 등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게 되었고 이들은 때라의 살포, 정보의 수집, 무장대 활동 등 적극적으로 4.3에 참여했다.

한편 기존 여성들은 부녀동맹과 여성동맹으로 이어지는 여성사회단체를 통해 활동했다. 여성사회단체는 각 리부터 조직된 자발적 결사체인 부녀회가 부녀동맹으로 다시 여성동맹으로 개편되는 등 상향식 조직 개편에 따라 여성단체의 활동 및 여성들의 참여는 대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여성단체 지도자들의 경우 독립운동가 및 지식인 집안 출신의 인텔리 여성들이 대부분으로 대중적 지지를 획득했다. 제주여성들의 사회참여 및 활동의 계기는 제주사회의 축첩제의 철폐 등 반(反)봉건적 이유였으나 3.1기념대회의 참여, 단선저지 투쟁 및 군,경의 반 민족적인 탄압에 대해 점차 반미(反美) 등 사회적, 정치적 의식으로 고양되었다.

한편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 발발 이후 군, 경의 토벌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장대 색출뿐만 아니라 제주 전지역의 기층 민중의 인권을 유린하는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은 고문, 성폭력, 강제 결혼 및 학살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

188) 제주도 인민위원회의 지도적인 인물들은 항일 경험자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대중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다.

토벌대에 의한 고문의 실패는 여성을 도피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또는 중산간 마을의 주민이라는 이유로 나체 하에서 고문을 자행하기도 하고 전기고문을 통한 허위 자백을 강요하기도 하고 심지어 임신부에 대한 무분별한 고문을 자행했다.

토벌대는 마을에 남아있던 여성들을 강제 연행하여 성폭력을 행했고 이러한 성폭력은 공동체의 파괴를 위한 공격의 수단이 되었으며 겁탈은 말할 것도 없고 임신부와 출산중인 여성에게 마저 자신의 폭력적 힘을 과시하고 학살한 것이다. 또한 마을 사람들을 집단으로 모아놓고 강제로 남녀를 지목하여 성교를 시키는 등 반인륜적이고 도박적인 행위를 감행했다. 주민들의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강제 성교는 그 자체가 공격의 한 전략이 되어 마을 주민전체에게 모멸감을 심어주고 위협의 수단이 되었다. 토벌에 앞장섰던 서청을 비롯한 토벌대는 제주도민을 모두 빨갱이로 인식하고 없애져야 할 인종으로 규정하여 인종 청소하듯 집단적 학살을 감행하기도 했다. 특히 여성의 몸은 공동체 문화를 재생산하는 상징으로 이해되었기에 성폭력을 통해 제주 공동체 사회를 와해시키고자 했다. 여성의 정조와 모성은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의 보루이며 여성의 몸은 가족이나 친족 같은 가부장제 집단의 사회체제에 귀속되기 때문에 여성의 성적 폭력에 대한 수치와 모성의 파괴는 공동체 전체의 수치이며 상실을 가져온다.

여성에 대한 학살은 초토화작전이 벌어진 이후 본격적으로 학살이 자행되었으며 토벌대와 무장대에 의해 보복적 차원의 학살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또한 계엄령 선포이후인 1948년 11월부터 1949년 3월의 시기동안 집중적으로 일어난 강제결혼의 사례는 서청의 폭력과 위협 앞에서 여성은 가족의 희생을 막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례와 가족과 집안에 의해 강제결혼을 당한 여성들의 인권유린의 실상을 보여준다.

한편 4.3사건이 종결이 된 이후에도 예비검속에 의한 무분별한 수감으로 학살당하기도 하고 살아남은 여성들 중 젊은 층은 바다 건너 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 1년형을 언도 받은 여성은 살아 돌아왔으나 한국전쟁 발발의 와중에 재소자들은 돌아오지 못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잔인한 국가 폭력 앞에 희생된 가족을 둔 살아남은 여성들은 항쟁이 종결되자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일구고 지역공동체를 복원시켰으며 남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가장으로서의 삶의 고달픔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자식이 없고 남편마저 4.3에 죽었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경제적 차원에서 삶의 전략으로 재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재가한 경우 대부분 첩이 되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한편 현재에도 여성은 수난을 당하고 있다. 희생자 가족들에게는 연좌제의 피해와 효적의 문제, 사회적 편견과 멸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sup>189)</sup>

이 논문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밝히면서 글을 끝맺고자 한다. 본고는 4.3

189) 1981년 3월 24일 내무부는 연좌제 폐지 지침을 발표했다.

민중항쟁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정치활동에의 참여와 존재 형태에 대한 규명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가폭력 내지 토벌대 남성으로부터 어떠한 폭력에 희생되어야 했는지 규명해보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4.3이후 살아남은 여성들의 삶과 기억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래의 문제의식이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회의감이 든다. 한국현대사에서 전쟁도 아닌 시점에서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분단체제의 태동기에 제주 4.3항쟁에서의 여성의 활동의 역사와 인권침해의 역사를 밝혀내는 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 싶다.

또한 역사를 책상에서 손과 머리로만 쓰기보다는 직접 역사현장을 조사하고 현지 취재와 증언채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본인은 본 논문에서는 직접 제주도를 찾아가 당시 주민들의 역사 증언을 참고하여 역사적 공간을 최대한 복원시키도록 노력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문헌사료에서 누락된 여성의 삶의 역사가 되살려지기를 희망한다.

이 연구가 4.3민중항쟁의 총체적 복원을 위한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큰 도움을 주신 한림화 선생님의 여성사 연구의 선구자적 모습처럼 본고가 한국현대사에서 여성사를 규명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강용삼, 이경수, 『대하실록 제주 백년』, 태광문화사, 1984
- 강정구,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조선의 분단-4.3항쟁을 중심으로」, 『제 2회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1998년 8월 21일-24일
- 김성례, 「국가폭력과 여성체험-제주 4.3을 중심으로」, 같은 대회 발표문 - 「근대성과 폭력: 제주 4.3의 담론 정치」, 『제주 4.3 5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 발표문』, 1998년 3월 28일
- 오금숙, 「4.3을 통해 본 여성인권 피해 사례」, 같은 대회 발표문
- 양조훈, 「제주 4.3양민학살 사건」, 같은 대회 발표문
- 김계유, 「여순사건의 회고」, 같은 대회 발표문
- 김창후, 「1948년 4.3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역사비평』 20호(봄호), 역사비평사 1993
- 서울대학교 동아리 연합회, 『제주민중항쟁 자료집 2』, 1992년 3월 23일
- 제주 4.3연구소,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화사, 1991
- 『4.3장정』, 1990
- 『무덤에서 살아나온 4.3수형자들』, 역사비평사, 2002
-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1~5권, 전예원, 1994~1998
- 김점곤, 『한국전쟁과 노동당 전략』, 박영사, 1973
- 김남식, 『남로당 연구』, 돌베개, 1984
- 아라리 연구원, 『제주민중항쟁 1』, 소나무, 1988
- 서종석, 『한국현대 민족운동 연구』, 역사비평사, 1992
- 최장집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 미셸 푸코외, 『섹슈얼리티의 정치와 페미니즘』, 새물결, 1995
- 『성의 역사』 1, 나남출판, 1990
- 오성찬 채록, 『한라의 통곡소리』, 소나무, 1988
- 제주 4.3 연구소, 『이제사 말했수다』, 한울, 1989
- 서종석, 『조봉암과 1950년대 (하)』, 역사비평사, 2000
- , 『한국 현대 민족 운동 연구』 2, 역사비평사, 1996
- 한국 인권 재단,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1,2, 사람생각, 2001
- ,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2000
- 코모리 요우이치, 타카하시 테츠야, 『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서』 삼인, 1999

- 동아시아 평화인권 한국 위원회, 『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 1, 삼인  
 제주 4.3 제 50주년 기념 학술, 문화사업 추진위,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학민  
 사, 1998
-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0
- 김항원,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제주대 출판부, 2000
- 정현백, 「여성사 연구의 이론과 방법」, 『역사 비평』 26호, 가을, 1994
- 이남희, 「서구 여성사 연구의 형성과 전개」, 『한국사 시민강좌』 제15,  
 일조각, 1994
- 윤택림, 「지방, 여성, 역사: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지방사 연구」, 『한국여성학』 제  
 11권, 1995  
 - 『인류학자의 과거여행: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3
- 최숙경, 「한국여성사 연구의 성립과 과제」, 『한국사 시민강좌』 15, 일조각, 1994
- 조혜정, 「발전과 저발전: 제주 해녀 사회의 성체제와 근대화」,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 조남현, 『제주 4.3 사건의 쟁점과 진실』, 돌담
- 김영범, 「집단 학살과 집합 기억」, 『냉전시대 동아시아 양민학살』,  
 4.3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자료집, 1999
- 김종민, 「제주 4.3 항쟁-대규모 민중학살의 진상」, 역사문제 연구소,  
 『역사비평』 42호(봄호), 역사비평사 1988
- 김봉현, 김민주, 아라리 연구원 편, 「제주도 인민들의 4.3무장 투쟁사」, 『제주 민  
 중항쟁』 1, 소나무, 1998
- 고창훈, 「제주 민중항쟁의 경제 사회적 해석」,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1  
 - 「4.3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1989
- 안종철, 「제주도 인민위원회와 전남인민위원회의 조직관계」,  
 『제주항쟁 창간호』, 실천문학사, 1991
- 이영훈, 「일제하 제주도 인구변동과 경제 사회구조」, 같은 책  
 권명아, 「수난사 이야기로 다시 만들어진 민족이야기-분단이후  
 한국사회에서의 민족, 민중 개념의 개조와 젠더정치」, 김철 외, 『문학속의  
 파시즘』, 삼인, 2001
- 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월간 말, 2000
- 수잔 브라운 밀러, 『성폭력의 역사』, 일월서각, 1990
- 조용환 외, 『21세기의 인권』 2, 한길사, 2000

한지희, 「국민보도연맹의 조직과 학살」, 『역사비평』, 1996년 겨울, 역사비평사  
 권귀숙, 「제주 4.3의 사회적 기억」,  
 박미선, 「4.3 그리고 여성으로 살아가기」, 『제주작가』 제7호, 실천문학사, 2001  
 캐더린 맥키년, 「전쟁시의 범죄, 평화시의 범죄」,  
     『현대사상과 인권』, 사람과 생각, 2000  
 유철인 외, 「제주 4.3경험과 마을 공동체의 변화」,  
     『한국문화인류학』, 제 34집, 2001

## 2. 간행물, 자료집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제주 4.3 사건 자료집』 1,2,3  
 (신문편)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제주여성사 자료총서』Ⅲ  
 제주도 경찰국, 『제주경찰사』, 1990  
 제주도 의회, 『제주4.3자료집-미군정보고서』, 2000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도 4.3피해조사 보고서』(수정,보완판), 1997  
 동아시아 평화인권위원회, 『제주 4.3 제50주년 기념 제2회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1998,  
     『제주 4.3 제 5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자료집』, 1998년 3월 28일  
 한국전쟁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 『전쟁과 인권:학살의  
 반세기를 넘어서:민간인 학살 심포지움 자료집』, 2000  
 이경주,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가긴급권-제주 4.3수형자명부를 중심으로」, 제주  
 4.3군법회의 수형인을 통해 본 국가폭력과 인권세미나, 2002  
 7.7만병디 유족회, 『만병디에 묻힌 진상과 증언』, 7.7만병디 예비 검속 희생자 자  
 료집, 온누리, 2002  
 제주문화원, 『20세기 제주인명사전』, 2000  
 한림화, 「Jeu Women as Civic Actors in the Jeju April 3rd Uprising: from  
 humanism to Civic Engagement」, Conference to havard University  
 『』, 2003. 4월 25일  
 대검찰청 수사국, 『좌익사건 실록』 8  
 전주교도소 수형인 명부

### 3. 학위논문

- 양한권, 「제주도 4.3폭동의 배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8
- 박명림, 「제주도 4.3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8  
- 「제주 4.3과 한국 현대사: 의미, 전망, 과제」,  
『제주 4.3 5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 발표문』, 1998년 3월 28일
- 양정심, 「제주 4.3항쟁에 관한 연구-남로당 제주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5
- 존 메릴, 「제주도 반란」, 『제주민중항쟁 1』, 소나무, 1988
- 이승희, 「한국여성운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의과 박사 학위 논문, 1990
- 이정주, 「제주 초미마을 여성들의 생애 사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4.3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여성학 석사학위 논문, 1999
- 최기자, 「여성주의 역사쓰기를 위한 여성 빨치산 구술생애사 연구」, 한양대학교 대  
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1
- 서승, 「동아시아에 있어서 국가테러리즘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에 관한 연  
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9
- 강성현, 「제주 4.3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대량학살시기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  
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2
- 안진, 「미군정기 국가기구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  
사논문, 1990
- 조연주, 「1920년대 야학의 교육적 저항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논문, 1987

### 4. 신문 잡지

제주신보  
서울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노력인민  
새한민보  
시사저널  
사회와 사상(말)

## ABSTRACT

### Jeju Women's Lives in the Context of the Jeju April 3rd Uprising

Lee, Jung Sook

Department of education  
Major in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 Kyun 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analyze Jeju women's lives in the context of the Jeju Uprising.

After reviewing the social and political contexts of the Jeju Uprising, I use data gathered from interviews with female Jeju witnesses. This report hopes that it is used as a means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all Korean citizens.

Korean independence brought a new dimension to conflict associated with governance and political ideology. There is disagreement among researchers over the influence of communist and class ideology on Jeju, but all researchers admit the presence of communists at that time.

Jeju women benefited from having access to schools and study meetings arranged at the village level. Leaders who returned from Japan with some education and industrial work experience were the primary organizers of schools and study meetings. Their efforts helped the Jeju to mobilize thousands of people for demonstrations on March 1, 1947, and to organize a general strike on Jeju.

Jeju's women's lives were affected by the action of right-wing political groups. Because of women's political action. Before and during the Uprising, many of these same women supported the activities of the Self Defense Force in their village by providing supplies and food and by establishing communication networks. As members of various voluntary organizations associated with village-based, Jeju women were active in women's, youth, and student groups, which facilitated their ability to create communication networks among villages. During the time leading up to and immediately following the Uprising, members of the women's association also published and distributed political fliers,

and later provided shelter and food for islanders seeking refuge from the violent actions of the police, army, and right-wing paramilitary organizations. As women, they also suffered from their compassion for all victims of disasters inflicted by military and police forces. These violations include death, rape, torture, and forced marriages. Jeju women were defenseless targets for violent acts inflicted by the police, army, and right-wing political groups.

The Jeju Uprising led to increase in the number of widows inhabiting Jeju Province. Even though Jeju women had been a part of the local labor force to a much greater degree than women in other parts of Korea, they were still living within the confines of a patriarchal social structure that generally failed to support the lives of single female parents, regardless of the cause of their situations.

Emphasizing the social contexts of that incident, we established three categories of Jeju women's experiences: the support of the Jeju Uprising insurgents and refugees, violence at the hands of illegitimate authoritative bodies, and a commitment to community development.